朝鮮日報 夕刊 四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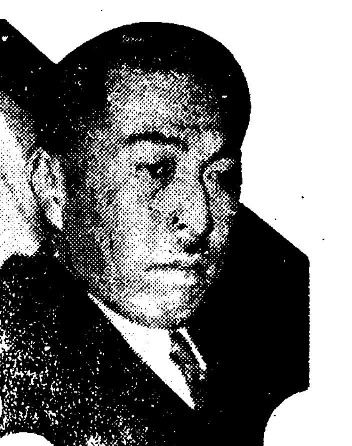
金鶴香油

今後國際聯盟과는 平和的 文化的 協力도 拒否

軍縮會議와 經濟會議等 一切脫退

政府、對聯盟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國際聯盟이 制裁規定適用을 採擇한 結果 聯盟과 日本과의 對立이 明白하게 된데 鑑하야 政府는 從來取해 오던 平和的文化的 協力을 斷絶키로하고 國際勞働機關、一般軍縮會議、世界經濟會議等을비롯하야 現在日本이 政府委員을 派遣하고잇는 委任統治委員會、阿片問題諮問委員會及 日本人이 個人의資格으로 參加하고잇는 常設委任統治委員會、學藝協力委員會、保險委員會、阿片委員會等으로부터 一齊히 脫退할方針인바 國際司法裁判所와의 關係는 그 設立의 經緯로보아 聯盟自體와는 當然히 相異한것이므로 今後도 協力을繼續할作定이다 (寫眞은 近衛首相)



田家鎭對岸要塞 半壁山을 遂占領

【九江四日發同盟】田家鎭對岸要塞半壁山要塞로 向하야 今曉敢然總攻擊을 開始한 我軍은 不意의 攻擊으로 狼狽하면서도 頑强히 抵抗하는 敵을 一蹴하고 四日午前九時 마츰내 同要塞를 占領하엿다

【上海四日發同盟】艦隊報道部四日午前十時發表=今四日午前九時十分 我海軍陸戰隊는 江上艦艇、海軍航空部隊 協力下에 田家鎭對岸半壁山要塞를占領하엿다

【○○艦上에서四日同盟特派員發】海軍陸戰隊及一部陸軍部隊는 四日早曉 朝霧를衝하고 半壁山下流 ○○地帶에 敵前上陸을 決行하야 半壁山前面의 敵陣에 攻擊을 開始하엿다 一方江上艦艇의 艦艇은 舳艫相銜行動을 開始하야 濁流를 헤치고 遡江 半壁山 要塞陣地에 向하야 猛烈한 巨彈을 集注하매 敵도地의利를밋고 猛烈히 反擊하야 彼我의 砲聲이 殷殷히 長江을 壓하는 壯烈한 砲擊戰을 展開하엿다

半壁山占領까지

【○○艦上에서四日同盟特派員發】四日早曉를 期하야 行한半壁山總攻擊에 海荒鷲軍은 朝霧를무릅쓰고 戰線上空에飛來하야 江上艦艇及 陸戰隊와서로 呼應하야 鐵壁을자랑하는 敵陣에 巨彈을퍼부어 反復爆擊을敢行、陸、空、江三位一體의 適切한砲爆擊을敢行한즉 敵陣은 어느듯硝煙에 싸여 動搖를開始 海軍陸戰隊及 一部陸軍部隊는 即時突擊前進으로 옮겨 午前九時지나 完全히 이를占領 半壁山要塞上에는 軍艦旗及日章旗가 燦然히 飜揚되엿다

半壁山要塞는

【九江四日發同盟】海陸空協力下에 마침내 我手中에歸한半壁山要塞는 別名半邊山要塞라고도하는데 九月二十九日陷落된 田家鎭要塞 對岸에잇서서 兩要塞가並立하여 長江을扼하고 我軍의漢口進攻을阻止 漢口의死命을制하는 重要한獨立陣地인바 急峻한 高百米되는 岩石이 屹立하고 그우에는 無數한砲臺를 設置한바 數十의砲門은 江面을睥睨하고 漢口에의 進擊을阻止하고잇섯다 戰果詳細는 調査中이나 敵의死傷者는無數 要塞砲其他重砲砲彈은 莫大한數에達할모양이다 同要塞은 武穴上流十三浬 大冶下流三十浬에잇서서 江流는 이곳서急히幅이 狹少하여저잇스며 兩岸間隙은 五百米에不過하는곳도잇다 半壁山要塞攻略은 敵이不落을자랑하던 田家鎭要塞와함께 武漢第一線水路防衛上 最後的打擊을 준것이라할것으로 悠久한揚子江을舞臺로하는 戰史에더욱 光彩잇는한페ㅡ지를더하게되엿다

英首相의 妥協外交 野黨側痛烈히 非難

四國協定은 武裝平和에 不過

【倫敦三日發同盟】英國下院은 四國會談終了를 기다려 三日午後 再開한바 먼저 쿠ㅡ퍼前海相의 辭任理由를 說明한後 午後三時 三十分 체임벌린首相은 滿場의拍手裡에 起立하야 뮨헨三國協定 成立에 至하기까지의 交涉經過를說明하엿다 체임벌린首相은 먼저 四國協定의內容을 報告한後 『余는 本協定에는 무선 撤回해야될條項乃至 遺憾된다고 너기는點은 包含되지안엇다고 確信한다』는旨 堂堂히 所信을披瀝하고 歐洲大戰勃發을 阻止하기爲하야 四國協定을 締結하지 안을수업게된 事情을 詳細히說明하엿다 이어首相은 체코에對한 經濟援助問題에言及하고 『政府는 目下 체코政府의 要請에 基하야 三千萬磅 의借款保證을 考慮中인바 그中 一千萬磅은 直時 賦與할方針이다』라고 具體的 援助方法을 說明하고 다시 四國協定成立後 發表된 英獨共同宣言의 主旨를 說明 軍備强化의 必要를 力說하야 四時二十五分에 前後五十三分間에 亘한 演說을 結하엿다 首相의演說에 對하야 勞働黨黨首아트리ㅡ 少佐는 起立하야 체임벌린首相은 今回의危機打開에 當하야 終始 讓步와妥協을 일삼은事를 痛烈히非難하고 四國協定은 武裝休戰에 不過하다고 論難하엿다 다시 自由黨 黨首싱크레아氏도 亦同樣 체임벌린外交의 軟弱性을 攻擊 最後에 이든前外相이 起立하야 亦是 체임벌린外交의 消極性에 批判을加하엿다 (寫眞은 체英首相)

四國會談報告內容

【倫敦三日發同盟】체임벌린首相은 三日午前 下院에서 뮨헨市의四國協定成立經過에關하야 報告演說을한바 체임벌린首相은 먼저四國會談前의 緊迫한 形勢로부터 始作하야 四國協定은 이慘事를 回避한 最善의 對策이라고 喝破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ㅡ 뮨헨의 四國會談開催直前의情勢는 事態逼迫의 遷延을不許하는 狀態로서 悲慘한 戰爭勃發의 가진 豫想이 準備되고 잇섯다 고데스베르히市의 第二次會談席上 히틀러總統이 提出한 覺書와 四國協定과를 比較하면 公平한意見을 가진 人士이면 누구나 修正이 同一한 線即平和的手段의 線에 沿하야 極히 重要한 修正을 加하여진것을 認定할것이다 四國協定은 벌서最後의通牒이안이고 또如何한個人或은 國家의 勝利로도 看做될것이안이다 히틀러總統의 고데스베르히 覺書는 實際는 六日의 期限附最後通牒이엿다 四國會談에서는 再次英佛共同解決案에入하야 英佛獨伊關係 四國의共同聲明及監視下에重要點의適用條件을 決定한것이다 四國協定에는 英佛은 체코의 [illegible]되지안코侵略에 對하야 체코의 安全을 保障할旨의 規定이잇다 이것은 고데스베르히의覺書中에는 包含되지 안엇던것이다 四國會談의 眞正한 成功은 四大國이 何等人命의損失도 보지안코 極히 困難微 … 定하게되엿다 체임벌린首相은 이어 對체코經濟援助問題에 轉하야 政府는 체코政府의 要求에基하야 總額三千萬磅의 借款募集에 關하야 考慮中이다 그中 一千萬磅은 直時融資하도록 英蘭銀行에對하야 체코政府의 必要로하는 크레디트를 供與하도록 要請하엿다 이어 히틀러總統을비롯하야 關係各國政治家의 平和解決을 爲하야 努力한協力을謝하고 히틀러獨總統의 協力은眞實로 實質的의것이며 뭇소리니伊首相의 盡力한바는 頗히顯著한것이엿다 또 달라디에佛首相이 欣然히 責任을負한 勇氣와決心은 賞讚에値하는바가잇다 特히 루스벨트米大統領의 世界最强國의 聲明은 各國으로하여금 主張을傾聽시키고 歐洲의 商議를便利케하는데 큰힘이잇슨最重要한것이엿다 이어 체임벌린首相은 英獨共同宣言에 言及하야曰 余는뮨헨會談의終에 際하야 히틀러總統과의 間에英獨共同宣言을 發表한바 獨逸과의間에新協定을 締結한것은 안이다 또新義務를 負擔한것도안이다 英獨共同宣言에는 秘密의諒解는 全然하지안는다 히틀러總統과의 會談은 何等第三國을 目標로하는것은 안이다 單只히틀러總統과의 間에連絡을保持하려는것이다 이것은近代外交에 對하야 不可欠의 要件이라고信한다 過去一週間의 事件은 拱手傍觀할수업다는 敎訓을 示하고잇지안는가 平和를 達成하기爲하야는 活潑한 積極的努力이 必要하다 我等은 一日에一擧로 建設할수는업다 뮨헨의 四國協定이成立되엿다고해도 我等의努力을緩和하여도 조타고생각해서는 안된다 最後로 체임벌린首相은 軍備强化의必要를 力說하고 如左히 끄를막엇다 英國은 單獨으로 軍縮을 實行할수는업다 軍備縮少에對하야는 他國의協力을 確實히어들것이明白하게되지안는限 他國에 依賴할수업다 同時에 我等은 英國을防衛함과 同時에 他國과의友好關係를 維持하기爲하야 我軍備를 强化할 必要가잇다 余는 어데까지 現實을直視하고잇는바 方今軍備縮少의 目的을實行할 새로운機會가 到來한것을 感하고잇다

英首相 佛首相에 親書

【倫敦三日發同盟】체임벌린首相은 一日달라디에佛首相에 親書를 送付하야 歐羅巴의 危機回避에 盡力한 同首相의協力을 深謝함과同時에 歐洲平和維持를 爲하야 今後도 亦是 英佛兩國의提携를 强化할것을 强調하엿다 체임벌린首相의 親書要旨는 다음과갓다 今回歐羅巴危機에際하야 달라디에首相이 終始忠實히 友好的協力을준것은 深謝不堪하는 바이다 英獨兩國은 뮨헨會談終了에際하야 英獨共同宣言을 發表한바 同宣言에指示된 精神은 英國과가티 佛國에서도 全然正當한것으로 認定하고잇다 余는 다시 一層 歐洲의平和强化를 圖謀하기爲하야 今後도 繼續하야 달라디에首相의 協力을 要望한다

四國協定成立에 佛外交修正難免

【巴里三日發同盟】뮨헨四國協定의 成立에 依하야 佛蘭西는 大戰以來의 外交政策에 大修正을 加하지안을수업게되엿는바 今後 殘存한 問題는 佛蘇相互條約뿐으로 이亦是 餘命이 얼마남지 안엇다 目下 巴里滯在中의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스ㅡ릿쓰駐佛蘇聯大使와가티 今後佛蘇關係의 新事態에 對應하야 如何히 對處할가에 苦慮하고잇다 一方뮨헨의 英獨共同宣言은 佛國에 一抹의 不安을 주고잇섯는데 이點에 關하여서는 달라디에首相에 送한 一日附의체임벌린英首相親書에 依하야 多少 安堵한비치보인다 巴里政界에서는 히틀러ㅡ獨總統과 체임벌린首相과의 數次의 會談에잇서서 英獨兩國間에 諸懸案에關한 相當詳細한 討議가 行하여젓다고 觀測하고 其外에도 다음의 諸項을 包含하엿스리라고보고잇다

一、地中海安定
二、經濟財政協力
三、植民地再調整
四、空軍協定
五、軍備制限
六、不可侵條約의締結

萬若 今後 漸次右諸點이 實現된다면 現佛國도 이에 追隨할것은 明白하야 蘇聯은 마침내 歐洲로부터 驅逐을當하게될것으로 英·佛·獨·伊四國間의 新로카르노協定締結成立의實現이可能하리라고 觀測된다

히總統第二段으로 발칸方面을 睥睨

匈、土、유고等諸國에 對한經濟的覇權確立次 對佛諒解確立에 注力

【紐育三日發同盟】今回의 체코問題解決後에 歐洲政局의 變動如何는 各方面의 注目을 集中하고 各種各樣의 觀測이 行하여지고 잇는데、三日 紐育에 達한 AP伯林通報는 히틀러總統의 다음의 目標는 발칸方面에잇다 이때문에 獨佛間諒解에 努力할것이다라고하야 左와如히 論하고잇다

주데텐問題後에 올 히틀러總統의 新目標는 다음의 諸點에 要約될것이다

即 第一은匈牙利를爲始하야、土耳其、유고슬라비아、불가리아等발칸 諸國에 對한 經濟的覇權의 確立이다 이미 풍크經濟相이 이에關한 打診을 爲하야 발칸各地를 訪問한 事實이 잇다

第二는 獨佛間의 諒解確立이다 이에 依하야 多年 不俱戴天의 敵으로 되어잇는 對佛關係는 아마도解消될것이다

第三은 新基礎에 立脚한 米獨通商 條約의 締結이다

그리고 히틀러總統과 체임벌린首相은 去卅日 四國會談에際하야 獨逸植民地返還問題에도言及하고 九十九個年間의 期限附에依한 舊獨逸領租借可否에 關하여서도 多少協議한바、爲先植民地問題는 表面化하지안키로된模樣이다 (寫眞은 히總統)

獨國防軍第二區進駐

【伯林三日發同盟】一日歷史的체코進駐를開始한 獨逸國防軍은 繼續하야 第一第二區域을 占領하고 三日午前에는 豫定대로 西部카르스바드方面 第三區域으로 向하야 進駐를開始하엿다

時事解說 노벨平和賞

諾威오슬로로부터의情報에依하면 노벨平和賞關係者間에는 체임벌린英首相이今番歐洲平和確保에 多大한貢獻을하엿다하야 그에게 노벨平和賞을 주자는論이잇스며 佛國巴里에서는 市會의決議로 체임벌린氏의 이름을 町名으로 採用하야 氏에게 感謝의뜻을 表하기로되엿다한다 그러면 노벨平和賞이란 무엇일까?

◇

노벨賞은 瑞典의 化學者 노벨氏가 一八九五年十一月二十七日 附遺言狀으로써 設定한 賞金으로서 그의全財產三一、二八〇、〇七四크로네를基金으로하고 그利子를五等分하야 每年物理學、化學、生理學醫學、文學에 가장 重要한發明과 發見을하고 功勞가만흔者에와 人類世界의 平和增進에 貢獻이만흔者에게 授與하기로된것이다 各部賞授與者를 決定하기爲하야 物理學과化學은 瑞典의王國科學學士院에 生理醫學은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醫科大學에 文學은 瑞典學士院에 各各 노벨賞授與委員會가 設定되여잇스나 平和賞은 諾威의오슬로議會가 一定數의委員을두어 受賞資格詮衡을 하게되엿다 受賞資格審査에는 노벨賞委員會가 獨斷으로定하지안코 世界의有名한 大學者와및 旣往노벨賞을 바든사람의 意見을 參考하야 世界學界의 權威잇는賞으로 만들기에 努力하는터로 平和賞은 그해에가장 世界平和에 功勞가만흔사람에게 주는것이다。

◇

노벨賞은 每年 노벨의忌日인 十二月十日 스톡홀름에서 授賞式을 擧行하는데 只今까지 平和賞을 바든사람으로는 米國의 루스벨트(前大統領)、윌손、英國의 오스틴·체임벌린、佛國의 브리앙、獨逸의 스트레제만 等 有名한 政治家 外交家 學者等의 이름이 빗나고잇다。

政府、專任外相에 重光大使를起用?

拓相은有馬農相이兼任乎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漢口攻略을 目前에두고 速히專任外相을 決定하야 政府部內陣容을 整備하고 支那事變收拾에當하고저 宇垣外相에失敗한 辭職에비치여 五相會議에서 協調할수잇는것과 外形보다도 手腕에實質的能力을가저 外務省內를充分히統制할만한 人物을 標準하고 愼重히銓衡을進行한結果 第一候補로서 新駐英大使重光葵氏를 拔擢하야 外相就任內交涉을行하고잇는바 同氏의承諾을어지못하게될境遇에는 駐米大使齋藤博氏를 起用하게될模樣이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專任外相을 決定하는同時에 近衛首相의拓相兼任을解하고 于先有馬農相 또는末次內相의兼任으로할方針인바 外地米穀問題에對한 主管關係인 拓相이라는地位로보아 아마도有馬農相의兼任을 보게될것으로 觀測된다(寫眞은 重光氏)

宇垣前外相 各閣僚에게退官人事

【東京電話同盟】宇垣前外相은四日 午前十時十五分 首相官邸로 드러가 閣議列參集中인 近衛首相以下 各閣僚에對하야 退官人事를述하고 여러가지로 懇談한後 辭去하엿다

勝尾少將十三日着任

今回改編後의 朝鮮軍初代報道部長으로 新任한 勝尾少將은 十三日着任의 豫定인바 同少將은 平壤師團長을 最後로 豫備役編入된사람으로 今般再起한 典型的의 武人이다 時局下重大任務를當하게되기에 適任者로 部內外에서 多大한 期待를바듯고잇다

共産軍根據地 五臺縣城占領

【石家莊三日發同盟】我中村部隊는 二日夕刻 敵共産軍의根據地인 北部山西五台縣城을 完全히占領 我將兵의意氣는 軒昂하다 … 三百名이 逆襲하야왓스나 兩部隊는 此를逆擊하야 殲滅的打擊을與하엿다

梅家灣도占領

【○○山頂에서 三日同盟特派員發】德永、柴田各部隊는 敵彈을무릅쓰고 三日午後一時四十分梅家灣東側高地를奪取、日章旗를翻揚하엿다 敵은同一時頃同高地를

東頭山을占領

【排市三日發同盟】連日陽新南方山岳地帶를 攻擊中인 津田、鈴木、飯村各部隊는 緊密한連繫를 保持코 三日午後一時東頭山을完全히 占領하엿다

山西省北方要點 子路河興隆店을占領

【○○三日發同盟】信陽으로向하는 我諸部隊가 三十日 羅山附近으로부터 行動을 開始한 以來 逆襲을 反復, 執拗한抵抗을 繼續하는敵도 我○砲○○車隊協力에依한○○部隊의 猛攻에는 抵抗할수업서 漸次後退, 三日早朝부터 欄干鋪(羅山西方三十里)以西의 既設陣地內로 逃避하엿다 我○○部隊는 一擧에 二十里를 前進하야 目下欄干鋪附近敵을攻擊中이다 一方羅山西南方을 向한○○部隊는 三日朝에는 羅山西北方四十里 要點子路河 興隆店을占領하여 信陽前進基地 五里店의側背로부터 重大脅威를 주게되엿다

清水部隊長戰死

【石家莊三日發同盟】去一日午後 太原東方壽陽北方三十里의 戰鬪에서 淸水喜代美部隊長(高知縣出身)은 陣頭에서서 部隊를 指揮 勇戰中 敵彈을 맛고 壯烈한 戰死를 遂하엿다

我砲兵戰車隊等 宋家灣設堡陣地粉碎

【○○三日發同盟】井上戰車隊○隊及 吉川兵砲隊○砲隊、八角工兵隊의 決死的 掩護下에 一日正午부터 今三日에 亘하야 攻擊을 開始한 我軍은 敵이 가장 裝備를 자랑하는 宋家灣設堡에 向하야 猛射를 퍼부어 銃眼機關銃座를 닥치는대로 三十餘個나 破壞하야 敵에게 致命的大損害를 與하엿다 宋家灣의 設堡陣地는 今次事變以來 처음 前設한 敵의防禦施設로서 四方八方에 銃眼을備하야 山頂에서 山麓에亘하야 一面의掩蓋銃座를 設備한것으로 트치카以上의 偉力을가젓다고한다

히總統一行에게르着

【伯林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헨라인黨首 카이텔陸軍次官 히므라親衛隊長을同伴 三日午前十一時 獨체코國境을越하야 주데텐獨逸人의 熱狂的歡呼裡에 주데텐地方의 主邑에게르에 入하엿다 주데텐地方의主邑엣슈市에 歷史的第一步를印한 一行은 沿道를埋沒하는 주데텐獨逸人의 歡迎裡에 앗슈로부터 에게르(헵)에到着하엿다 同日에게르의 거리는 하켄크로이츠旗로 더피고市民은 異口同聲으로 『히틀러萬歲』를 連呼 總統一行을迎하야 히틀러總統은이에 應하야簡單한 人事를 述하엿다

壽石橋附近의 頑敵을 猛攻擊

【○○四日發同盟】三日午後三時頃 空中偵察에依하면 羅山으로부터 信陽으로 西進中의 我有力部隊는 馬畈西方二粁되는 姚家灣附近으로進出 壽石橋附近 敵에對하야 猛攻中이다

胡適駐米大使 紐育着任談

【紐育三日發同盟】新任駐米支那大使胡適博士는 三日퀸·메리號로 歐洲로부터 紐育에到着하엿다 胡適博士는 一兩日紐育에滯在한다음 華盛頓에赴하야 루즈벨트大統領에 信任狀을 捧呈할豫定이다 出迎한記者團에 對하야 米國國民의 對支援助를 要請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今回의 日支紛爭에 際하야 支那民衆에 多大한 同情을 寄與한 米國에赴任하게된것은 欣快不堪이다 余는 眞摯한 公開外交에依하야 期必코 米國國民의 期待에 應하려고 한다 特히 聯盟國이 規約第十六條에 基하야 自發的行動에 出하기를 希望하야 마지안는다

故元田肇氏의 葬儀 盛大히執行

【東京電話同盟】故樞密顧問官元田肇氏葬儀는 秋雨가나리는 四日午後一時부터 青山齋場에서 喪主俊夫氏, 葬儀委員長 原嘉道氏下에 遺族、友人政界를 爲始하야 各方面의 名士가 多數參列 盛大히 執行되여 午後二時부터 告別式으로 드러간바 會葬者數千名에達하야 盛儀를極하엿다

人事·集會

▲菊池一德氏(朝鮮製鍊株式會社長) 新任人事次四日來社
▲志賀融氏(總督府技師)退官人事次來社
▲村上隆道氏(總督府理事官)同上

八面鋒

聯盟理事會에서는 規約第十七條에 依하야 日本에 制裁를 加하기로 決定。
◇
그러나 그制裁란것은 過去經驗에 依하야 集團的이 못되고 個別的으로 한다고。
◇
그리고 그實行方法도 自信이 업서 今後 그處理를 考慮한다고。
◇
實際上 效果는 못내고 聯盟의 體面은 지켜야겟고 聯盟도 迷路에서 彷徨。
◇
차라리 聯盟을 改組 又는 解消가 如何。
◇
업는 돈을 일부러 貯蓄 시키지말라고 學務局 各道에 通牒。
◇
何必 學童에게뿐이랴。借金하야 貯蓄하는 일은 말게함이 至當。
◇
本社主催 學生美展作品 五百餘點 蒐合。
◇
點點이 精金美玉 어린藝術家들의 靈과 魂의 表情。

謹告

現下 戰時經濟體制下에서 新聞用紙節約을 當하고잇는것은 讀者諸氏의 周知하시는바입니다 그리하야 今番本社等은 當局의 用紙統制政策에 順應하야 來月五日附 夕刊四頁을 減하야 發行하기로하얏습니다 江湖諸彦의 寬容을바라오며 倍前의 愛護를비나이다

十月四日

東亞日報社
朝鮮日報社

運命鑑定所 松谷 李鳴鶴先生 號泰根 京城府信町 ㅡ

색실 手藝材料 文化ヤン己수실、푼사실、털실、아프리、佛蘭西刺繡絲、手藝品一切 朝鮮沙里院本町 天光堂手藝社 振替京城四二一番

强性强精藥 精力衰退와早漏에百發百中!

清導補腎丸 十日分 六圓 一個月分 十五圓

梅毒斷根藥 商報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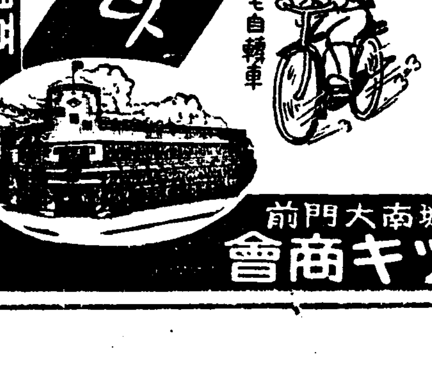
淋疾斷根藥

林病丸 一劑五圓

喘息喘嗽藥

積에는 敵積丹

國境大藥房 安東市一番通五丁目 振替京城一二五一番 電話 四三九一番



자동차·자전거 コドモ 自轉車·自動車
애기들의運動써ー스가왓다
新荷多數入
五圓均一 (大中小)
二十五圓均一 十八吋 廿吋 廿二吋 廿四吋 コドモ自轉車
(カタログ進呈)
乳母車·手押車·遊戯用車
京城南大門前 ツヅ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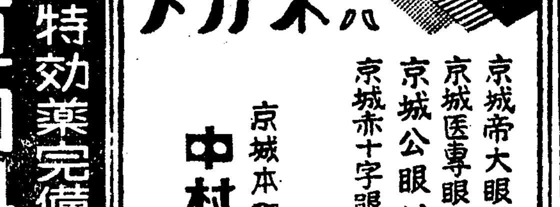
皮膚 チャーヂ 차ー지
◎顔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종 여드름、버짐、頑癬、…
◎근질근질한皮膚病에곡한병만쓰면 영낙업시完治됩니다
定價 卅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食慾素 わかもと

慢性 モヒ中毒 元北海道帝國大學醫學部教授 太黑薰先生創製 オネ ホンヌーチン 發明完成
根本療法 無苦痛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朝鮮信託 貸出業務案內 不動産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年賦、定期貸付を低利迅速に御取扱致します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支店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歐米各國特效藥完備 韓箕道內科醫院 米國生物醫學博士 韓箕道 京城鍾路三丁目七番地 電話(光)一八七八(入院室用) 三六一五(診察室用)


メガネハ 京城帝大眼科 京城醫專眼科 京城公眼科 京城赤十字眼科 御指定
京城本町一丁目入口 中村眼鏡店 本局五〇一七 振替京城三四六

戰爭은이제부터!

非常時를再認識하라

五年、十年에亘할長期戰覺悟로써

銃後後援强化强調

오늘부터 사흘까지 일주일동안을 총후후원강화주간(銃後後援强化週間)으로정하야 전국일제히 실시하기로되엿다 이것은 일본의 국민강화주간이라고도할만한것으로 오늘날 비상시를 기피재인식시켜서 총후국민의 적당한 결심과 각오를하도록하는 극히시중한 행사이다 이행사를 실시함에당하야 사일총독부에서는 다음과가튼 내용의 요령을발표하야 총후국민의 재인식을 강조하얏다

바야흐로 일반국민은 비상시에 직면하야잇는데 이비상시의 정도는 일본전국 바비국국에까지 울리어잇다 일청전역(日淸戰役)、일로전쟁(日露戰爭)、만주사변(滿洲事變)등 이모두비상시엿지만 그때비상시와 오늘당한 비상시와는 전연 비교가되지안는다 오늘날 일본이 상대하는적은 반드시 지나(支那)뿐만이아니라 그들을조하야 장기항전케하는 이면의적이잇는데 그들은 일본국력이 소모되는날을 기대러 표면으로 덤비들라는 무리들이니 이것은 동에도 서에도 원방에나 근방에나 잠재하여잇스며 시기를 엿보고잇다 그들도지나의선패는 문제가아니다 다만 일본인만 전쟁에지처서 비명을울리며 물자가 절핍되어 전쟁을 게속할수업는때만 기대릴뿐이다 한구(漢口)가 함락되면 시국은 일단락을 고하는 줄로 생각하는 인식부족한 국민이 한사람이라도잇서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전쟁은 겨우 서막에 불과하다 정말전쟁은 이제부터이다 따라서 장기전이라하는것은 일년이나 이년을 말하는것이아니라 오년 십년 반영구적 게속전쟁을 말하는것이다

明日부터 銃後後援强化週間

戰沒英靈追慕 傷病兵과遺族慰勞

총후의 임무는 여러가지가잇스나 각자직업상 임무 혹은 가정생활상임무등 각각 주위환경에따러 다를것은 말할것도업거니와 전반적으로 총후국민의 의무를 이저서는 안된다

사변장기게속에따러 잘못하면 모든긴장된 관념이 풀러질염려도 업지안흔터인즉 전몰용사의 공적을 사모하며조석으로 명복을빌고 장병의유가족과 상병군인들에대한 후원위로하는것이 과연 충분한가? 또는 어느정도까지 실행하고잇나? 이런것을 고요히 반성하야 철저치못한점을 고처서 유감이업도록 할것이다 위문대(慰問袋)、위문편지를 보내는것도 조치만 다시 출정장병의 유가족을 위로하야 그들의 곤궁한 의락이되도록하여야한다

明日午前八時 全府民이默禱

총후후원강화주간의 첫날인명오일아침여덟시 경성부에서는경성신사(京城神社)를 비롯하야여러곳에서 일제히 상병군인의평유기원(平癒祈願)과 출정군인의 무운장구 기원제를 행할터이다 이시간에는 차이렌울리어 전부민은 전차가운데서나 길가운데서거나 집안에서거나 모두일분간 묵도를올리기로되엿다

京畿道講演班 週間中에各地巡回

경기도에서는 장기전에 대처할 시국인식을 한결더 깁게하게 응징(膺懲)군인과 전몰장병의 유가족에대한 총후후원의의를 벼울기하기위하야 군부 장교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하나가되여 강연반(講演班)을조직 각처로파견하기로되엿다는데 일자와 장소와강사는 아래와갓다

日程	場所	講師
十月五日	廣州	武田中佐
	抱州	山根大尉
	坡州	渡 中尉
		高橋聯盟理事
	楊州	猪谷大尉
十月六日	利川	西村大佐
		元 惠 常
	長湍	山根大尉
	安城	渡邊中佐
	高陽	武田中佐
		高橋理事
	加平	永津中尉
	抱川	山名中尉
十月七日	驪州	西村大佐
		曺 秉 相
	開豊	山根大尉
		李 升 雨
	富川	猪谷大尉
		高橋理事
十月九日	楊平	倉成中尉
		元 惠 常
	漣川	渡 中尉
		石原理事
	開城	栗本中尉
		賀田理事長
十月十日	仁川	西村大佐
		韓 相 龍
	水原	西村大佐
		曺 秉 相
	金浦	鷹田少佐
		金 思 演
十月十一日	龍仁	倉成中尉
		曺 秉 相
	始興	岩崎大尉
		韓 相 龍
	江華	鷹田少佐
		金 思 演

朝鮮神宮競技大會의 籠、排球對陣決定

總數六十七團體가參加

朝鮮體育協會主催의 第十六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籠球部와 排球部競技는 來十四日부터 十七日까지의 四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擧行될터이며 籠、排兩部의參加團은 六十七團體에達하는바그 對陣抽籤은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

◇籠球部

【女子部】 釜山高女 光州大和 第二高女 永生高女 京女師B 淑明高女 京女師A 權氏高女 梨花高女 大邱高女 同德高女 淑明高女

【男子中等部】 京城師範 平壤三中 新川中學 京城中學 光州西中 光文中學 光成中學 京畿商業 京城中學 大邱中學 信明學校 培材中學 徽新學校 養正商業 仁川商業 中東學校 善隣商業 普成中學 海州東中 協成實業 晉州農業 大東商業

◇排球部

【女子中等部】 京城第一高女 京城第二高女 大邱高女 同德高女 元山高女 光州大和 淑明高女 京城第一高女 東萊高女 釜山高女 京城女師 平壤高女 鎭南浦高女 春川高女 (其他)

【男子中等部】 釜山中學 京城中學 京城師範 京城中學 龍山中學 善隣商業 平壤一中

【高等部】 大學豫科 普成專門

【男子一般部】 …

【女子一般部】 京城女…

咸興蹴球團出發

【咸南】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에 出場하는 咸興代表咸興蹴球團은 四日밤車로 必勝을 期하고 出發하엿다 ▲部長 金相洙 ▲監督 … ▲主將 李吉洙 ▲主將李春林 ▲選手 禹敬洛 洪七 李裕昌 黃明彪 朴明燮 金仁福 金月龍 車淳玉 金惠守 金鍾俊 宋基洙 吳漢根

運動界人事·集會

▲李章洙君(京城府廳籠上選手)東京에서 열리는 東西對抗籠上競技大會에 出場次 四日午後四時十五分發列車로 渡東 ▲朴貫輝君(京城府廳籠上選手)同上

運盡한窃盜師

東京、大阪、滿洲가本舞臺로 歸鄕첫솜씨에運盡

일백구십번지 이태순(李泰淳)(二八)이가 용산역에서 황금정(黃金町)자동차들고 연병장(練兵場)근처를 지날제 어느흙에 수금해가지고오던 구십여원는 지갑을 잃어서 잇스므로 용산역서부터자기가까이 따라오던 동경제과를 노리고 정거장을기다려 여병정 파출소 순사에게 인도하엿다는데 피해자는 서울 조선 내지의 중요도지 상의 무대삼고 신출귀몰한 국제적괴도가 인게되엇다는데 그자의 소위 치하고 취조한결과 이는경남마산(馬山)에본적을두고 주소가일정치안흔 전파사범상게상(張啓相)(三二)으로 여죄를추궁한바 그동안 대판(大阪) 동경(東京)등지에서 『공필』열차여객을 전문으로 절취하다가 히로(姬路)형무소에서 이년여월에 출옥한후 만주로 가서 신경(新京)봉천(奉天)대련(大連)등지에서 ... 이년만에 귀향하야 ...에 운이다하여 용산서원에게 체포되엿다 날 첫솜씨를 전차속에서 보이다가 십오분경 부내원정(元町)삼정목

隔離한漁父解放코 船舶出入不日復舊

鎭南浦에虎疫禍終熄

【鎭南浦支局電話】진남포의호열자는 최근사오일이래 새로 발생이 업서서 세관창고(稅關倉庫)에 격리수용되엇든 어부일천육백여명중 일백오십명을 제일회로 사일오전열시 해방하엿고 먼지방에서 고기잡을 어선에 대하야는 오일부터 해금하기로 되엇다 남어지 격리자도 이삼일간안으로 전부 해방하는동시에 대동강연안(大同江沿岸)지대의 고기잡이도 불일간해금키로되엿다 그래서 금사일 평남도에서 진남포에 파견되엇던 위생과원과 경원(警員) 덕천(德川)등지에서 왓든 응원경관대도 전부 물러갓다

따러서 하로바삐 선박이자유로 종전과가티 진남포항에 출입되도록 전부해금하여달라고사일오전열시에 진남포상공회의소 석천이사(石川理事)를 비롯하야 곡물관계자와 선박업자등 열명일행이 먼저 진남포서장을 방문진정한후 즉시 평남도청으로 가서 진정키로 되엿스므로 금후 이삼일내로 호열자가다시발생하지안는한 일체가 종전대로 회복될모양이다

…리(細里)서 떠나 대전(大田)으로가든 제일천육백육열차가 가수원(佳水院) 서대전(西大田)사이를 진행하든중 거리을 들러쏘고 선로안에 가로누어잇는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곳급정거를하엿스나 드디어 깔려죽엇다 그는 충남대덕군유천면도대리(大德郡柳川面 島垈里)에사는 임춘보(任春甫)로 정신병자엿다한다

換節期의赤信號

市內傳染病漸增形勢

전염병도지타는 반갑지안흔현명조차 밧고잇는 경성부의구월중 환자발생상황을 보면적리가 일백팔십명 장질부사가 사십명 파라티부스가 두명 성홍열이아홉명 디푸테리아가 사십팔명기타 합게이백구십 팔명이라는다수이데 작년동월과 비교하면구십오명의 증가이다 그중에서도 적리가 가장만히 늘어 작년동월보담 유십사명이나 증가이다

江陵에無電局 五日開局式擧行

체신국에서는 일본해항행선박이 격증하야 해조통신이 대단 폭주하는데 대비하고저 강릉(江陵)에 무선전신국을 신설중이던바 청사기타기계설비가 다되엿스므로 오일산전(山田)체신국장 임석아래 성대한 개국식(開局式)을 거행하기로되엿다 최근 관북(關北)일대의 급격한 산업개발에따라 내지와의 연락이 빈번하야 일본해는 바야흐로일본의 호수(湖水)로 되여가고잇는데 일본해를 왕래하는 선박과 내지와의연락은 이때까지 주로청진무선전신국(淸津無線電信局)을 경유하엿스나 통신의폭주로 지장이만케되므로 … 강릉국이생기게된것은 이방면 통신에 큰효과가 잇슬것으로 기대된다

宜寧殺人事件 嫌疑者檢擧

【慶南支社發】지난이일에 이러난 경남의령의 진주(晋州)원전(原田)자동차부 영업소주임 백정우길(白井友吉)내외 살인사건은 이래 각경찰이 범인수사에 노력중 협천군적중면해리(陜川郡赤中面海里)모막산 사무원인 송정일웅(松井一雄)(二〇)이 시월일일오후아홉시반경에 읍내중동요네야(ヨネヤ)여관에서 숙박…

窃盜로轉向한 派出所給仕

꼬리길어留置場에

자전거 절도범으로 전락한 파출소급사ㅡ 일일오전 여덟시경 시내신당정(新堂町)방동수(方東壽)고물상에 얼마전까지신당정파출소 급사로잇든 신당정일백칠십번지의이용호 박무영(朴武榮)이라는 열여덟살된소년이 자전거한대를 가지고와서 팔라는것을 급사로잇든 신당정파출소순사가보고 수상히여겨 자전거의출처를 무럿더니 어물어물함으로 본서로이치코 추궁한결과 앵정정(櫻井町)이정목 한성사(韓星社)의 자전거를 훔쳐온것을자백하엿다는데 이급사는 파출소를 그만둔후 지난달이십오일에 안국정(安國町)에서한대 이십구일에는 경성우편국에서한대 그리고 일일에절취한 한대까지일주일동안에 세대나 도적질해다가 팔어먹은것까지 자백하엿다는데 도적해온 자전거를 처분할때마다 자기는 신당정파출소급사라는것을강조하야 교묘히의심을 피해온것이라한다

自轉車에轢傷

사일오전열한시사십분경 부내한강통(漢江通)삼번지의일백일호 암근가사랑(岩根嘉四郞)(三)이가 동흑번지아홉지나다 아현정(阿峴町)팔십오번지의이백이십일호 문경신(文敬信)(三)이가 운전하고지나던 자동차에 치엿스므로 즉시 철도병원(鐵道病院)에수용하고 치료중이데 전치삼주일의 중상이라한다

驛手轢傷

삼일오후아홉시오분에 남경성역안에서 작업을하고잇던역원 삼택국웅(三宅國雄)군은 기관차의 아페 뛰어타려다가 미그러떠러저서 왼편다리가 끈허젓다 생명에는 상관업스리라한다

色鉛筆

자식을 사랑한다는것처럼 절대적이오 무조건인 감정이 잇슬수업다 ▲그러나 사랑도 사랑나름이어서 흔히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망처놋는모양을 얼마든지 보게된다 ▲부모의 자식사랑이 제아무리 크고넓다하지만은 그사랑이 사랑밧는자식의 심혼(心魂)에 어울리지안코 거슬리어 부즈러운 귀치안코 거치장스러운 구속(拘束)에지날것 서는 ▲도리어 자식의 몸가짐 밀어나니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마음을 런독한사랑이 못될때는 벌써 그자식은 그른된육친의 사랑때문에 사실상 『정신적고아』의 가엽슨 처지에 빠지는일이 만타 ▲아버지가 아니주는 용돈을 어머니는 몰래주는 버릇을 키워서 ▲밀경부자집 자식으로 절도의 범죄 구렁에 빠저 버렷다니 이무슨 꼴인가 ▲엄부자친(嚴父慈親)이란 거의 철측가티 되어버린 지금가정의 관습(慣習)은 어제 오늘에시작된것이 아니것만은 때로이것이 크고작은 폐해가 하나둘이 아니엇거니 차리리 새삼스럽다할나위조차업는 지경이다 ▲천하의 어버이들은 자식사랑의도(道)를 다시금 배우도록 노력할일이다

暴騰의燃料筆頭로 公定價格을設定

節期關係로時急히分科委員會를열터 今日物價委員會初會議

총독부물가위원회(物價委員會)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는 사일오후한시부터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이하과 수적식산국장(穗積殖産局長)등재하에 제일차총회를개최하엿다 이날은제일차회합인만치 대야정무총감으로부터 물가전문위원회설치에관한 그취지와 금후실행에대하야 일장의설명이잇슨후 총괄적으로 유십점명의위원의 의견교환이잇섯다 그리고분과위원회는 며칠후에 개최할터인데 절기관계상 당면의중요문제인 연료(燃料)에관한것을먼저내걸고 토의할터이다 작년보다 삼할내지 오할이 폭등한석탄 연탄과 오할내지삼할이 폭등한 장작, 목탄등의 시세가장차 닥쳐올 엄동을 아페두고제일착으로 위원의 『메스』를 밧게되엇다

洋服店에 窃盜

삼일오후 여덟시경부내 인사정(仁寺町)한광석(韓光錫)양복점에서 점원이 안으로드러간사히에 어떤자가드러와서 양복천 이백팔십원어치를 메여갓는데 보고를밧고종로서원이달녀와서 조사해본결과범인은대략 짐작되는모양으로 삼일동서에서는 계동정(桂洞町)일백삼십삼번지 전과일범 한상식(韓相植)(二〇)을 용의자로 각처에수배를하엿다

朝日택시運轉手 今朝突然히怠業

京城驛下車客一時困惑

사일오전여섯시경부터 동열시경까지 경성역압독점 『택시-』업조일(朝日)자동차부의 운전수약사십명이 태업을하야 오전…이십분 함흥(咸興)…서오는것 동시에 부산(釜山)서오는 … 사십분 청진(淸津)… 등여섯열차에서 내린승객은 자동차가업서서 매우불편을당하엿다한다

이상과가티 조일자동차부운전수가 태업을하게된원인은 그자동차부운전수 오십명으로조직된 상호부조기관 친화회(親和會)회장 김종화(金鍾和)이가 회비약오백원을횡령하고 얼마전본정서에 체포되엇다가 그돈을변제하고서 방되엿는데 회사측에서는 그사람을다시 채용하려고함으로 운전수들이 반대하며 김종화를 다시채용하지못하도록 본정서에 진정하엿든바 조합자동차부 사장이 십수년 회사일을본 사람의 체면을 보아 운전수들이 운운하는것은 괘씸하다고하며 운전수들을 하나씩불러다가 김종화재용에관한 의견을물어 여겨 이 위협적태도라고 격분한 운전수삼십칠명이 사일아침 본정서를방문 재진정을하는동시에 전기와가티 태업을한결과가된것이다 또한 오십명운전수중 매일사십명씩 출근하는 제도가되여 남어지 사오명도 적기시각 취업을 유예하고잇서 역아페서는 자동차를 탈수업시 되엿던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이사건은 본정서의 알선으로 결국김종화를 다시채용하지안키로 한후 오전열시부터 운전수들이 취업을하야 원만히해결되엿다는데 이가튼자동차부내부문제로 경성의관문을 … 불편하게하고잇스매 조일자동차부와 운전수측에서는 각각 다음과 가티 말한다

湯川支配人談

김종화를 다시채용하지안키로 하야 운전수들은 전부취업하엿는데 다수승객에게 불편을주어 미안하게되엿슴니다

一運轉手談

우리회의 회비를 횡령한사람을 또다시채용한다고하며 사장이 하나씩불러다가 꾸짓음으로 어보아서 도다시 본정서에진정하엿던것입니다

鐵道局弔魂祭

철도국제이십사회 조혼제(弔魂祭)는 사일오전열한시부터 용산철도공원 조혼비(弔魂碑)압에서 거행하엿는데 원일도국장이하 각국장 다수의 참렬로 엄숙히 진행하엿다

七十老翁轢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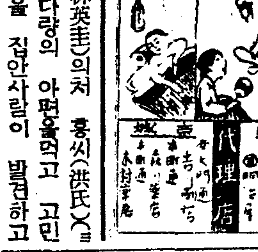
【平南支社發】일일오후다섯시이십오분경 평양부청결계자동차 평남일삼일육호(운전수 한흥주(韓興柱))가 운전하여 평양부서성리(西城里)평남선과 도로교차점부근을주하든중 동리이십구번지 유정표(劉定杓)(七〇)라는 노인을 치웟는데 피해자는 동질시 오십분경 도립의원에서절명하엿다

轢死한精神病者

삼일오전열시 어십사분에 …

中年女飮毒 家庭不和로厭世

삼일 오후여섯시경 부내청엽정(靑葉町)일정목구십오번지 임영규(林英圭)의처 홍씨(洪氏)(三〇)가 다량의 아편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직시봉래정(蓬萊町)삼정목 동아의원(東亞醫院)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자살하려던 원인은 가정불화라한다



銃後制服軍의快氣焰

射擊聯盟、各道에支部設置코 靑年、學生의教練擴充

학생청년에게사격(射擊)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야 비상시국국민훈련에대비ㅡ총독부 학무국안에잇는 조선학생청년사격연맹(朝鮮學生靑年射擊聯盟)은 종래년일회사업으로 사격대회를 개최하여왓는데 종래가맹학교는 전문학교이상 삼십교 중등학교 사십구교 청년훈련소 이십구개 이엿든것을 지방의학교와 청년훈련소에서는 경비기타사정으로 참가의기회를 노치며 그중에는 학교로서 참가치못하는 경우도 잇다

사격연맹에서는 이와가튼 장해를제거하야 일층그발전책을강구하얏스나 경비기타 기구제조관계로 실현을보지못하고 잇든바 학무국에서는 사격운동을 진흥시켜 청년훈련소의 교련의 규정되어잇슴에 비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저 지방에 지부설치를 계획하고 교련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가맹하며 교련을 실시하지안는 학교에서도 사경이허락하는 한도에서 장려보급을 도모하도록 삼일오후 학무국장으로부터 각도지사와 직할학교장에게 통첩을 발하엿다

그리고 사격연맹을 개조하야 본부는 경기도내소재학교와 청년훈련소를 중심으로 지부는 각도소재학교로써 조직하고 종래 … 하기로 되엿다

牙山에甘雨

【牙山】 충남아산지방은 근일개월동안이나 비가나리지 아니하야 전곡에도 다수감수를 보게될뿐더러 대중에이지못할 채소(菜蔬)가전멸상태이엿든바 지난일일오후오시부터 동일밤까지 감우(甘雨)가 나리여 농민들은 환희 동이원전히 해갈이되엿다고한다

製鍊所煙毒損害

卅萬圓賠償請求 鎭南浦果物組合에서

【鎭南浦】 진남포 제련소에 삼십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야 세간의비상한 주목을 끌고잇든 진남포과물동업조합(果物同業組合)에서는 삼일오전 조합장(組合長)목야(牧野)씨와 간부(幹部)일행이 진남포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에와서 하촌회두(河村會頭)와 석천이사(石川理事)를 방문하고 약일시간이나 요담(要談)한바잇섯는데 그내용인즉 과물동업조합에서 제련소당국에게 요구한 작년도(昨年)에 연독(煙毒)으로 인하야 피해당한손해배상금을 저간 여러번 직접교섭하고 잇스나 아직까지 아무런성의잇는 회답이업서 이것으로 상공회의소의 손을 빌어서 알선(斡旋)하야 속진(速進)하도록하여달나고 진정(陳情)한바 회의소에서는 도(道)부(府)와 협의한후 선처한다는 의미로 회답한바잇서 파면이문제에 대하야 장차 엇재해결될지 자못일반사회에서는 큰주목을 끌고잇다고한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管絃樂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講演 ▲七時三〇分講演 ▲八時吹奏樂 ▲八時三〇分 京畿歌謠 ▲九時 玄琴散調와伽倻琴 ▲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講演 ▲七〇〇分(東)講演 ▲六時二五分 (東)音 ▲六時二五分 歌謠 ▲七時四〇分 (自北京) ▲八時 (東)피아노獨奏 ▲八時二〇分 (東)時局講演 ▲八時四〇分 (東)浪曲 ▲九時 (大)義太夫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滿洲에 펴저잇고 中江鎭附近엔 稍低氣壓이 잇기때문에 國境北部는 小雨가 잇고 其外로 朝鮮, 滿洲는 모두 조흔天氣다。內地는 九州南部、四國海峽에 低氣壓이잇고 不連續線이 本邦太平洋岸에서 달리고 잇기때문에 大概비가 오고잇다。

豫報 今夜는 맑고 明日은 개엿다 흐렷다 한다

昨日氣溫	最高	二十七度八
同	最低	十四度六
四日朝	最低	十四度一
同正午		二十六度四

喘息·神經痛과 中風·高血壓 今津博士의굉장한研究 不治아니다

(所究研의中今津博士)

感謝의聲

今津硏究所 大阪市東區

治療師短期養成 鍼灸 器械鍼 無試驗開業 日本政府特許 英米獨佛特許 通信科·實地速成科 京城府大和町三丁目五五 奧村療法朝鮮學院

求職案內 朝報案內

懸賞尋犬 迷走 (狼灰色) 金百圓贈呈 京城三坂通

佐伯家具店

李英熙殿 (一名英子) 明治町一 李元吉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리ー도式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謹啓 時下秋菊之節에 錦體淸安하시믈伏祝이오며 陳者弊松竹園을 團總하고諸般風說이 喧騰히 巷間에도는바 이는弊園經營上支障은 勿論이오며 더욱顧客諸彦께對하야 罪悚萬萬이옵기 玆以紙上으로 謹告이오며 今後로는 益益業務를擴充하와 顧客諸彦께 誠心酬應코저하오니 以此照亮하옵고 倍前愛護하야주시믈 謹願하나이다

十月四日 京城府樂園町 朝鮮料理 松竹園 主 申光鎬

カゴメソース 滋味品의上質・最大의賣行 カゴメケチャップ本舖

鳳翔生薑乾薑 鳳翔産業組合 全北完州郡鳳東面 電話五番 振替京城二〇〇五八番

十月新譜 사랑손 朴丹馬 / 니웃집딸내 李圭南 盧碧花 / 눈물의손수건 曺永思 / 가시렵니까 ... / 울어서답니다 安山鏡 / 秋夜吾想 金福姬 / 港口는슬프다 金福姬 曺永思 / 글로바를지을때 李上南 / 빅타ー레코ー드

身外無物 健康第一

朝夕生凉

健康回復의最好期!

三伏 불가튼더위에 쩌진五臟六腑를
一刻 速히補하시오

虛弱이過度하면百藥이無効!

只今부터곳服用하시요

百補丸은・退더위・健胃腸・補元氣・함에天下第一・先服者全部證明

●누구나여름철에는 다더위을먹어서 더위症에걸니여잇습니다 이로因하야 胃腸이弱해지고따라서 食慾이줄고 消化가안되고 여위고元氣陽氣가 衰退되고 全身이虛弱해집니다

●여름철에 虛弱해진몸을 그대로두면 당장에는 別일업는것가트나 事實은 身體各部의 抵抗力이弱해지고 모든生理機能이 衰退되야 不知中肺病、陽氣不足、神經衰弱、체증、貧血症等不治의大病에걸니기쉽습니다

●누구를勿論하고 三伏더위에 몸이 虛弱해젓싸오니 于先百補丸을 服用하여 胃腸과元氣 陽氣等을 튼튼히補하시요 千金보다 더貴한내몸의無病 健康長壽를爲하야 服藥의 最好機、生凉한 初秋 只今부터 곳百補丸을 服用하기 始作하는것이 무엇보다 人生의第一急先務입니다

食事倍加・陽氣倍加・百病退治!

체증을 根本的으로 곳치십시다
陽氣不足을 根本的으로곳칩시다

百補丸의特長

一、大補脾胃하야 체증根絕!
二、大補元氣하야 陽氣永續!
三、氣血不足、神經衰弱、肺病、해소等이原因的으로 一掃됩니다

百補丸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形容이창백하고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弱하야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以上의症勢는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이 百補丸을服用하여 색색한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 淋疾도消滅됩니다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小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어느藥이고 三劑以上共同注文하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有名藥店
五、和信・三越

京城堅志町五
振替五番・電光 六三二番 六二三番 三三〇番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生男生女
▲天下名藥

부인의

경도부조와 자궁병 냉병 대하중 불임중과 산전산후 기혈부족에 효력 천하제일
月經血色이 조와지고
月經時期가 一定하여지고
赤白帶下와 惡臭가 一掃되고
月經時 腰痛 腹痛이 絕對的으로 업서집니다
얼굴이 절머지고 粉이곱게 잘먹습니다

婦人百補丸

몸이짤짤끄르면 탈란줄로아서요

애기가잘논다고예사로알단큰일

정확히체온을재는법

아이들은 웬만큼몸이 불편해도 그냥잘놉니다. 그러키때문에 어른들이 이내알어보지못하고 병을 놓치는수가만흔데 그리다가도 이마에 손을대보면 몹시뜨거워서 그제서야 깜짝놀라는수가 만습니다.

아이들은 어디가 탈이나면반드시 열이어느정도까지는오르는것이온즉 보통때열을재어두엇다가 그것과 비교해보면 열이얼마나 더올랏는지 알수잇습니다.

더구나 선천적으로 약질인아이나병들기쉬운아이들은 체온을 가끔재어둘필요가잇습니다.

체온을 재이는데는 도뙤뽁 새로판는 체온계로 삼분계(三分計)나 오분계(삼분이나 오분이상 몸에 가지고안다가 온도를 보는것)를이 조코 아이들은 몸을자꾸 움즈기기때문에 약밟은동안은 끼어두어야 완전히 열을 재일수가잇습니다. 재이는 방법은 겨드랑에 끼던지 입에물던지 혹은애꿋에하는데 서도는 보통씨로는 겨드랑이에 끼우는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보통 항문(肛門)에 재일때는 되도록 조용할때하는것이 조흡니다. 울거나 작난한직후에 재어보면 온도가 노파집니다. 더구나 씨름가튼것을 한뒤에보면 팔도내지 일도가오르는수도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몸씻을고나뒤끄래도 병이아닌열이이삼분오릅니다

또는 식전과식후도 다르고아침과 밤으로는 사오분의 차이는 보통입니다. 삼출성체질(滲出性體質)로재상은했서도 피부가약하고 부스럼이나기쉬운 아이에는체온의변화가 대단합니다 보통아침엔 삼십륙도삼사분이고밤엔 삼십륙도칠팔분으로 그이상이되여 삼십칠도구분까지는병으로 말미암은 열이아닙니다.

그러데 만약 삼십칠도를넘거든 반드시 어디가 편치안흔것이라고 생각해도틀림업는데 삼십칠도이상의미열이 매일가치계속될때는아이들자신은 잘놀고 아무러치도안치만 어디든지 잠복성질환(潜伏性疾患)—특히초기결핵에 흔히잇는수가잇습니다.

또는 갑자기 삼십칠도오륙분으로부터 팔도에 가까운 열이 내고 이튼날되면보통열도되고 또그것이 때때로 계속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어데인고 숨은병이잇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로써 삼십칠도 이상분의 미열이 계속되여도 초기결핵이외의 원인으로써 가벼운감기 기생충등이들어잇는지 주의해볼것입니다.

체온이 오르내리는것만 주의해두면 맥박이나 호흡은재여볼필요가 그다지업는데 그저상식으로 알어두는것도 조흘것입니다.

맥은반드시 잘잘때 재여보지안흐면 확실하지가 못하고 아이들의 호흡과 맥은 일분동안에 대체로아래와가티되는것을알고알어두십시요

만한살때	맥	一〇〇
일곱살때		八〇
열세살때		七〇―六六
만한살때	호흡	四〇―三〇
일곱살때		二五―二〇
열세살때		二〇

이상이 보통맥과호흡의 수짜입니다.

봄여름에는키가자라고 가을겨울엔살이쩌

원족은먼데보다가차운데자조

요즘할운동은어떠케?

건강증진에 제일 조흔가을 철엔학교에선 원족을가고 운동회도 엽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각가정에서는 할수잇는대로 일요일하로는 자녀들을데리고 어느조용한 시외로나가서 하로유쾌히 놀다오는것이 조흡니다.

아이들이 봄으로부터 여름에를때까지는 대체로 키가는자라면서 체중은 늘지안는데 가을부터 겨울엔 키보다도 살이올러체중이 무척늘게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시기에운동이부족해서 모든것이 활발치못하고 따라서 식욕이업서음식을 잘먹지 못하거나하면 자연발육에 큰영향이잇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일수록 적당한 운동을시켜야합니다.

그런데 더퍼노코 운동만하면 조흐냐하면 그건물론 그러치안코 신체발달된 정도를 따라서 운동을시켜야합니다

파도한 운동은 발육을 돕는커녕 장해가되는 경우잇스니 모든것에 중유한고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운동이라고하는것은 물론바가테서 외기쏘이는것으로써 집안에서 하는운동은 몬지를 만히먹고 해로운경우가 만습니다.

이아래 나이와 또그나이에적당한 운동을 말슴하겟습니다.

원족―너무먼곳에만 가지안흐면 대개 아동들에게 조흡니다. 허약한 아이라도 차츰 거리를 멀게해서 훈련하면 상당히 먼거리라도 가게됩니다.

원족을 갓다도라와서 아조피곤해서 식욕도 업서지고하면 그것은 너무과도히걸엇던 까닭입니다.

사실 가을에 한번 먼데로 원족을 가느니보담 가까운곳으로 자조가조가는것이 신체를 단련하는데 더큰효력이 잇습니다.

그리고 원족을 간다고해서 너무조하서 그전날밤에 잘자지도안코 일즉아침 조반도 변변히먹지안코 떠나면 중도에서 대단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므로 무리가업게 알마즌하게 걷는것이 제일조흡니다.

원족의 효과는 근육의운동을 연습하고 야외의 신선한공기를 호흡하는것으로써 가지고가지은 되도록간단해서 몸을 가볍고도자유스럽게할것입니다. 점심먹을것도 너무만히 가지고가면 흑 체하는수도 잇스니까요.

스포―츠=신체를 연단하는데는 몸전체를쓰는 전신운동이 제일적당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야구보다는 줄넘이더유익할것인데물론 흥미의유무도 생각해야할것입니다.

운동회나 경기에 선적을조케하려고 무리로 과도한 연습은 해롭습니다. 운동선수가 다명하다는것도 이런까닭입니다.

나이에따라적당한 운동을보면 대개 아래와가틉니다

칠세―구세=체중과 흉위(胸圍)가 부쩍느러갈때입니다. 그러나 근육이나 골격은 충분히여물지못한때이니

잘못씨우면은 불나기가쉬어

전등카버―에 주의합시다

방공연습이 잇슬때 제일주의할것은 광선을 가리기위해서전등을 불씨워가릴때 잘못해서화재를 이르키기 쉬운것입니다.

◇…불을 가린다든지 불을밝게 하기위해서 전등다마를보재기로차면 열때문에 불이나기 쉽습니다. 전기스탠드가튼것도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우산를씨우는것은 위험합니다. 전등갓이경우에는 절대로 이런방법을 써서는 안됩니다.

◇…상자갑 접는 조히로 상자를 맨들어서 전등을 가릴때 상자가 적어 다마에닷게되면 역시 불나기쉽습니다. 전등씨우는것을 할때는 쏘케트우에서부터 씨우지말고 삭갓끼는테서부터 내리게하십시다. 쏘케트까지 차면 열이 한데모여 위험할뿐더러 불을끄고 달고하기에도 불편합니다.

직사광선을 박그로 나가지안케하기위해서 전등을 미다지나 벽구석에 매다는수가 잇는데이러면 역시 불이 벽조희에 붓기쉽습니다.

양자기 오래쓰는비결

사기를흡린 남비는 사서그대로 쓰지말고 물한되에 초와소금을 큰수까락으로 각각하나씩타서 남비에붓고 한참 끄린후에 잘씻처서 쓰면 법랑질(琺瑯質)로부터 나오는독을 말숙하게 업새버리고 쓸수가 잇슬뿐더러 남비가 더오래갑니다.

애기 함부로 꾸지즈면 장래 큰일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작난꾸러기입니다 어떤때는 견디지못하게 작난합니다. 그럴때는 어머니나 집안어른들은 성이가시고 일을할수업스니까 입에서 나오는대로 욕도하고 심지어 때려내쫏끼도합니다 그러나 어른본위로한 생각할것이아니라 아이들 그자체를 늘생각해주어야합니다 함부로 꾸짓거나 한쪽에모라너흐라는것은 생각할문제입니다.

웨그러냐하면 아이들이몹시 작난하고 날뛰는것은그 아이가 병업시 건강하고기운이조타는증거입니다. 아이들이 작난하는것은 어른들이 일하는것이나마찬가지로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러데 어른들 생각만하고 자꾸꾸짓거나 때리거나하면 아이들은 차차로 겁쟁이가되고 빼뚜러지기가쉽습니다. 그리고 대단찬할일에도 신경을 써서 후천성의 신경질은대체로 부모들이 원인이생깁니다.

그러므로 애기들 작난은 엄격한데 어머니가 잘조절해서 그냥 버려두지도말고 너무 엄격하게 꾸짓지도말고 활발하게 자라도록해야 합니다.

평안남도에서 시행한 산파, 간호부시험

평안남도에서는 이십륙일부터 삼일간 간호부와(산파시험을시)행하엿는데 직업전선에 진출하려는 응모자삼십사명이 다음과가튼 시험문제를 푸노라고 가슴을 조엿다합니다. 간호부나 산파를 지원할분이 아니라도 종종 간호부와산파의 행위를 하게되는 가정부인들에게 흥미잇슬줄해서 그시험문제를 여기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평양지사 통신)

▲看護婦學說試驗問題 (時間各二時間)

一、左의問에答하라
1、心臟疾患의簡單한看護
2、『痰』의生理作用上의意義

二、換氣의 必要한 理由 및 換氣上의注意

三、『法定傳染病』과 『非法定傳染病』의各二種을 擧하고 其主要한 症狀과看護에 就하여 詳述하라

四、消化器系와 呼吸器系의 傳染病의 消毒上의 要點

五、人工呼吸法의 種類와 그術式。

▲產婆學說試驗問題(其一)

一、妊娠八月과十月과의鑑別

一、會陰保護術의 側臥位와 仰臥位와의得失을 比較하고其優劣에 就하여 意見을述하라

三、初生兒第一呼吸에 依한 其血行은 如何한 變化를이르키는가。

四、哺乳兒의 授乳上特히注意할 要點을記하라

(其二)

一、子宮增大가 妊娠月數에 適合하지안는 境遇무엇을 생각할것이가 又鑑別 그리고鑑別의要點

二、分娩에際하여 上肢의 脫出과 下肢의 脫出과 其何者가娩出에 困難한가 又其困難한理由

三、產褥熱의 原因과豫防的對策

四、左記에答하라
1、乳兒脚氣
2、產褥의心得

안경쓴부인네는 지튼화장맙시요

어데까지고짓적으로

녀자도 남자와가티 공부하고 또 거기에 어울니게 일하는 지금세상에 녀자안경쓰는것이 날노느러가는 무리가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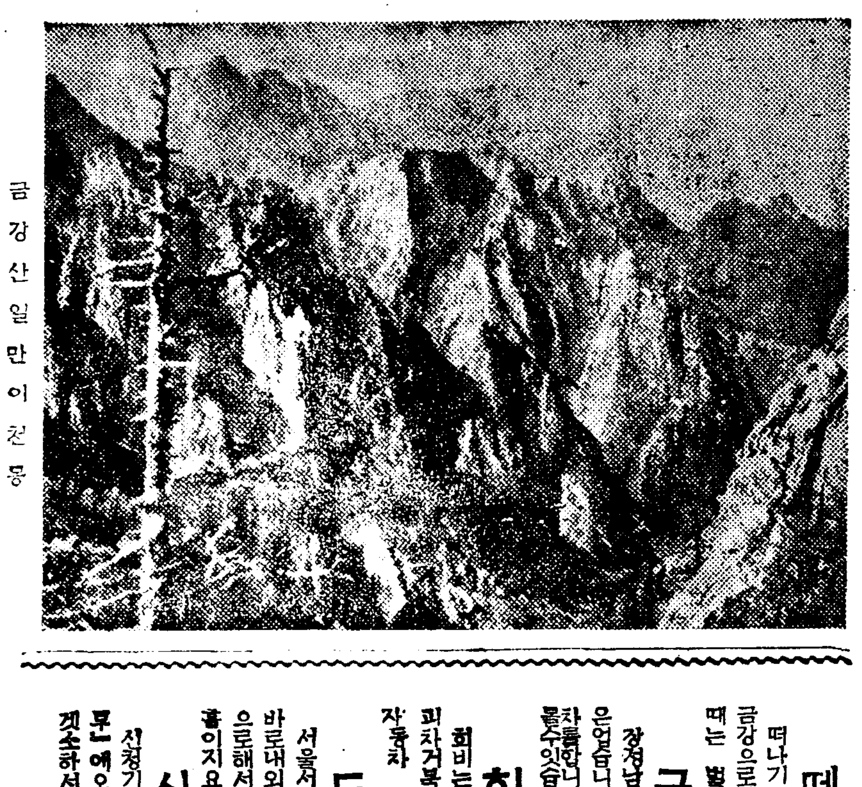
그러나 미용상으로보면 안경을쓴는것은 그다지 찬성할일이못되나 그러하고 근시안등가지신분이 안경을 안쓸수도업는것입니다. 다만 안경을 써드라도 거기에 어울니게 화장을할줄아는것이 필요합니다.

안경도수가 극히강한분은 아모리아름다운눈을 가진분이라도 안경을끼운후로 보면 눈이적게 보힙니다. 이것을 감출야면 눈의주위에다 빵연지를 약간발너두면조흡니다.

눈섭도 눈에대한인상에 대단히큰영향을 가지고잇슴으로 눈보다도 눈섭에 주의가 가도록 눈섭을 약간굵고 엽쁘게 그려노흐면 안경이 그다지 나타나보지안흡니다. 그리고 빵연지를눈꼬리근방으로 약간넓습니다

안경쓴분으로 대단히 지튼화장을하고 더구나 연지를 빨파입술에 지튼게칠한분을 보는데 그러치안어도 안경쓴얼굴은 눈에 띄이기 쉬운데 이가른지튼화장을 익숙지못한 솜씨로해노흐면 몹씨 천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안경쓴분의 화장은 되도록 엷고수수하게하고 어디까지나 지적(知的)인상을 주도록하는것이 현명할것입니다.



今年家庭婦人들노리는 天下名山金剛山探勝

그나마貸切自動車로편한행차

금강산일만이천봉

지난번의 『들노리』 대회는 작년바루이맘때입니다 일년에 겨우 한번이 즐거운노리를 올에는 멀찌이 금강산으로 정햇습니다. 금강산이조타는소리를 이제새삼스리 느러놀필요야잇습니까 여러분의마이 설명보다 압서서 일만이천봉의 려기에 어리고잇슬것입니다.

떠나는날 十月十五日밤

떠나기는 시월십오일밤十一時五分 경성역을떠나 이차가바로 금강으로가게됩니다. 침대차를 타게되니까 이튼날아침눈을 뜨실때는 벌서 내금강의 풍광이 황홀하게 아페벌려질것입니다.

구경할곳은 內外金剛

장정남자와달라 아모리명산구경이래도 진땀이흐르게까지 거를짓은업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길닷는데는 모두대절자동차로 버젓한행차를합니다. 그리고는 볼곳은 다보게되니 호화스러운려행이라고도 할수잇습니다 그나마 내외금강을 다봅니다.

회비는매인 二十二圓

회비는 한사람아페이십이원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넘우만허도 괴차거북하실것가태서 삼십명으로작정햇습니다. 갈적올적침대차에 자동차 드라이부가 돼노아 이 이상의 인원은 곤난하니까요.

도라오는날은十月十九日

서울서 시월십오일밤떠나 그이튼날 내금강에내려서부터 자동차로 바로내외금강을 구경한다음에 도라오는길은 동해북부선으로 안변으로해서 도라오게됩니다 이러케해서 닷새가걸리는데 객지잠은 나흘이지요 경성역도착은 십구일아침입니다.

신청기한은十月十二日까지

신청기한은 떠나는 사흘전 십이일까지 회비를 가지고본사 『사업부』에오셔서 신청하십시요 한번신청하신뒤에는 사정이잇서 못가게되서도 회비를 돌려드리지안습니다.

主催 朝鮮日報社事業部

자치리우

산

잠자코 잇는것은 모두 쓸쓸한게다。멀리 보이는 저산아 무엇을 생각하고잇느냐。
화산처럼 불도 내뿜지 안코 가만이 업드려만 잇구나
해질머리에 눈을 감고 산을바라보면
잠자코 잇는산의 마음 무시무시 해지기도 한다。

([illegible]사립 공선)

長篇小說 愚氓 【146】

朴泰遠 作 / 洪祐伯 畫

最後의犯罪(8)

선천집이 일러주던 그대로엿다。그 실섬한 사나이는 어둠속에서 대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노력하고 성냥불이라도 잡깟지 안코는 도저히 알어볼턱이 업는것을 몃번인가 부질업 기둥에 달린 문패를살피러 들고 그리고 혹은 고개를 틀고 또혹은 고개를숙이고 문아폴 오락가락 하기수십차―마치내 그곳에더 머물러잇기를 단념한듯이 문득 이편을향하여걸어온다。

근동위는 그가 자기 서잇는아폴 지나갈때 어둠속에서도 그가 분명히 김윤옥이―그동안 간곳을 몰랏던 그 이른바 『거리의철학자』가 틀림업슴을 아렷다。그는 순간에 마음을 결하고

『여보。』

은근한 목소리로 한마디 말을 걸엇다。

이 밤중에 누가 그러한 곳에 숨어 잇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엿던 욱진한 뉘집 문전에서 그러케 난데 업시 부르는 소리를 듯고도 결코 소스라치게놀란다거나 그러지 안는것은 역시 저의 본정신을 일키때문이리라

사나이는 잠깐 의아쩍게 근동위의 얼굴을 어둠속에 살피는 모양이엇스나 다시 아무표정도 업는 얼굴로 그의 아폴지나가려 한다。

『여보 내 일러드릴 말슴이잇소』

근동위는 다시 은근한 말소리로 한마디 더하엿다。

실섬한 사나이는 두번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도라본다。근동위는 그의 여프로한걸음 다가서며

『긴상 나를 모르시겟소? 나를 이즈셋소?』

짐짓 얼굴을 바짝 아프로갓다 대고

『긴상이 아직 선천 게실때압 뒷집에 살던 이서방을 이즈셋소?』

되는대로 그러한 말을 하여 보앗스나 가엽슨 사나이는 역시 물끄럼이 그의 얼굴만 치어다 볼뿐이다

그러한것은 상관안코 근동위는 독가치 은근한 말소리로 느러노핫다。

『서울서 나려온 조가란놈헌테 사랑하는 아낙을 뺏기고 긴상이 어데론지 가버린것도 벌써 그게 십오년전의 일이구료。참말 그런 욕이 어딋스며 그런 분할데가 어딋겟소? 그것을 참구서 불러스다니 말이되오? 그러한긴상 의심사를 우런 도무지 몰릿셧는데·그래두 오늘 와서엿날 뭐수를 잇지 안쿠 저집을 차저내구료。저집을……』

근동위는 어둠속에 자기집을 손꾸락질 하여 보엿다。

이제까지 잠잠히 서서 몰끄러미 그의 얼굴만 치어다 보던 김윤옥이가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근동위가 손꾸락질 하는 편을 바라보고 한마디 중얼거렷다。

『그래 저집이야。』

『자―저집이지?저집이 그패씸한 연놈이 히히거리구 재미잇게 살구 잇섯더란말이지? 긴상을 차버린 게집허구 그 조가라는 놈팽이허구……』

『응』

실섬한 사나이는 고개조차 한번 끄덕이고、중얼거렷다。

『지금두 불끄구 누어서 잔다 저집이서 잔다。』

『그래지。어제까지두 제서 잣섯지。재밋게 살엇섯지。』

근동위는 덤석 사나이의 팔을 잡고、

『허지만、오늘은 저집이 업서。연놈이 긴상이 노리고잇슨걸 알구 도망을 갓서。다른데루가버렷서。』

『……』

실섬한 사나이는 얼른 그의 말을 못알어듯는지 한참을 무표정하게 잇다가 문득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렷다。

『도망을 갓다? 도망을 갓다?』

『응、도망들을 갓지。허지만긴상 염려를 마오 나는 알우잇거던。나는 그것들이 간데를 알우 함께 갑시다。나허구 가치 갑시다。그래 둘이서 그것들을 혼을 좀 내줍시다 십오년의 원수를 이밤으루 좀 가픕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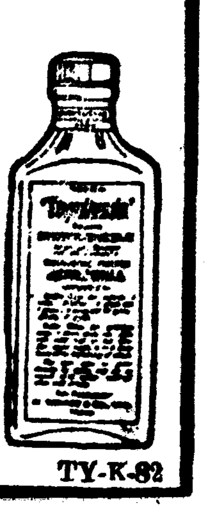
그러나、실섬한 사나이는 아무말 업시 그의 얼굴만 또 치어다 본다 그러한 그의 팔을 근동위는 잡어끌고、

『자― 이리루 오시유 나만따라 오시유。』

아프로 걸음을 옮기니 사나이는 그대로 순순히 따라선다 밤은 이미 자정이 가까웟고 어둠은 좀더 짓트다 어데선가 개가 잠깐 컹컹 지젓스나 그것도 직시 그치고 어둠속을 팔끼고 걸어가는 두사람의 발소리만 가만가만 들렷다。

근동위는 게으름 업시 사면을 살피며 대체 어데로 가서 어떠케 이것을 처치하여 버릴까 하고 그생각에만 바빳다。그러나 이제까지 사오십명의인명을 업시하여온 그로서도 어번의 범죄가 자기로서는 마직막의 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알리이 업섯다。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지밋신



늣더위가심한요새에는 어린애들께 위협한백일해 홍역기침 감기기침의특효약인「지밋신」은 구미각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 대표적제약으로 담·기침에 잘듯을뿐만아니라 맛이좋음으로써 약을 실허하는 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 유효한약입니다 또한 극약성분이조금도 석겨잇지않음으로 아모리 몸이약한어린애에게도 안심하고먹일수잇읍니다

그러므로 기침병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百日咳의특효약으로 칭찬을받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오며 병의진행중에는 경과를빨으게하고 심한발작과 몸쇠약을 방지하며 밤잠을잘자게하며 속히고롱에서버서나게하여줌니다

一圓 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잇읍니다

백일해·홍역
밧튼기침·천식
인후염·만성담
기침·감기폐염
으로인한기침에

喘息

요새에 더욱심한 고질의 천식에 특효한 重患用 지밋신이오니 심한發作과담을 속히 낫게하고 밤잠을 잘 주무시게만드는「에쭈에도로 지밋신」이 생겻읍니다

一五〇瓦…一圓八十錢

エフドロ・チミツシン 에쭈에도로 지밋신

氣管支 肺・肋膜

조선에특히많은 밝은기침 흡담거짐에 특효한 重患用 지밋신이오니 병세를 속히 다스릴뿐만아니라 병근원에까지 작용하는약입니다 특히 폐병기침에특효합니다

一五〇瓦…一圓八十錢

グアヤコ・チミツシン 구아야코 지밋신

東京·大阪 田邊商店

TY-K-82

大衆國師傳

遊學의動機 ⑤

湖岩

孔子는 東山에올라 魯를 적게녁엿거니와 義天은 [illegible]에잇서서 高麗를 좁게 녀겻다. 그는 當時高麗안에 잇는學識과人物을 거의다 알고 [illegible] 날수밧게업다. 才學이 超卓하되 [illegible] 義天은 다시 高師를 찾저서 外國으로 나가려고 決心하야 이르럿다. 그때高麗外에 文明國으로는 大陸에는 오직 宋이 잇슬뿐

이니 外國이라는것이 宋國을 指稱함이다. 義天이 出家하기 前前年에 下世한 宋仁宗은 高麗文宗 보다 조금앞서서 宋國에君臨하던 治平의賢主이니 이 仁宗朝는 歐陽脩等 幾多의 人才가 輩出하야 宋의特殊한 文學과 哲學을 새로 建設하던 支那文化史上 가장光輝잇는 時代이다. 宋의佛敎로 말하면 唐의盛時에比할수는 업스나 역시

[illegible] 하엿고 名僧도 만히 낫는데 [illegible]도 그中의一人이다.

義天은 일즉부터 [illegible]을 뜻하고 또 그 [illegible] 의 [illegible]에 그윽이 共鳴되어 宋商便에 멀리 淨源에게 글로써 [illegible]을 다그니 淨源도 義天이 非常人임을 알고 [illegible]狀을 보내여 한번오라고 招請하엿다.

이러케 書信往復으로 天涯知己가된 두高僧은 매양 서로 보기를 願하게되나 [illegible] 淨源은 七十이넘은 老僧이라 그가 죽기前에 面道하려는 마음이 懇切하므로 이것이 義天의 渡宋한 動機의 하나이되엿다. 義天은 自己에저 말하면

[illegible] 더 [illegible]하려는 생각으로 [illegible]를 맛나고저하엿다. 그러나 義天은 이밖게도 高僧에 업는 天台宗門을 開宗하려는 抱負가 잇슨것을 [illegible]해서는 아니된다.

그가 일즉 그 어머니[illegible] 王后를 모시고 [illegible] 自己願을 告白하야 갈우되 天台三觀은 最上眞乘인데 이 땅에宗門이 서지못햇스니 매우 [illegible]바라 臣이그윽이뜻이 잇나이다하엿다.

그러나 이와同時에 義天의 [illegible] 이 역시그의 [illegible]의 一大使命이엿슴을 잃어야 하겟다.

그가 일즉世子의대신으로 [illegible]하던때로부터 最後呼吸할때까지 一日一時

를떠 [illegible]라는뜻한 [illegible]을 가지엇던 치 어것이 아마도 [illegible]에의 가장主要한 目標物이 되엿슬 것이다.

그럼으로 義天의 [illegible]은 한갓 名山巨刹을 [illegible]하며 高僧大德을 歷訪하야 見聞을 넓피기爲함만도 아니다.

그야 當時宋의 [illegible]하야서 高麗의 佛敎와 서로 比較研究하려함도 그의 [illegible]中에 [illegible]이 업겟스나 上述한바와가티 [illegible] 天台[illegible]가 [illegible]가되엿다.

[illegible]에서 [illegible]하야 十數年동안 [illegible]마친 靑年義天이 一朝[illegible]을 決心함에 이르게된動機는 대강 이러하다.

學藝

十月創作評 —(5)
今日의文學的水準
韓仁澤과 張德祚

白鐵

以上에서 몃몃作品을 評해오는 가운데서 나는 은연중에今日의우리文學을 擔當하고잇는作家들의 無氣力과 作品水準에對한 不滿을

表

해왓지만 그것이 韓仁澤氏의『天才와 惡戲』(朝光)라는 作品에보면 그정도도 甚해서서 예여 무엇이라고 손을 부처볼수가업다. 滿身이都是瘡痍라할까 대체어데서 부터 手術에 메스를 너허야할른지 정신을못拾할수가 업는정도다 이作品에 나타난것으로 첫째 讀者의눈에 띄우는것은 作品內容에잇서서 作家의敎養과 論理性의 貧弱이너무 甚하다는點이다. 作品의골격이 재우집안코 사개가 질르지집안코 作品테-마의 構成이粗忽하다는等의 問題가아니다. 또한 單純히作品內容의 貧弱도아니라 이作中에나오는 一對話一句節이 하나도語感으로나 경우로나 論理에 드러맛는것이업다 作品內容인즉 男便과離婚을 하는女子가 男便을 거짓 天才에비겨 비웃는 非難이야긴데 그수작이 너무 꽝당하고 질서가업서 도무지取할것이업단말이 여기서 一一이 그것을指摘할것업이 손쉬게 첫

場

面의두어대목을뽑아내면 「어려라『당신을 조선이면 나혼 세게적천재라고……추천하겟소 천재와 천치를 따지는건 가장힘든인수분해일것이요……하기야 그런걸 분명히 설명하구 풀수잇다면 확게에 미치는공적이 큰것입니다만——』또 하나는바로 그다음 節로『참나는당신 부친께서 호령을 지를때마다 그호령소리를 듯구 느껴지는건 당신부친께서 일찌기 성악을연구하셧다면 지금쯤은 훌우시기는햇서두 세계적테너로명성이 세게에 빗낫슬것이지만을행히 호령은 당나귀 우룸소리가 음악의 영웅에 듯지못하는것과가티 그호령두음악외의 소리에서……』等 句節등마다 無意味한 다수『——』는 무엇때문에 가저다 부치는게며 그보다 이 作文의內容에 잇서서 어떤論理와 어떤比喩가 이다지도 無謀하랴 이것은 첫대목만이 그런게 아니라 以下前例와 같다는 意味에서 省略하는것인데 결말이 젓지이아니라 韓氏도 어지간이 [illegible]것이라고 생각한다. 바테리-의 [illegible]가운데『[illegible]

比

喩란가 이라든가 思想의 感情의 [illegible]이 뭣인지도 모르고……言語의 [illegible]는것처럼 羞恥스러운 일은 업다』는것이 잇는데 韓氏는 이 말을 가장 初步的인 意味에서 敎訓을바더 이제부터 絕對의努力을 하지안코는 作家로서氏의 前途는 업다고 생각한다. 대개 누구를 莫論하고 今日文學하마는作家가 아무努力도 업시 漆平히 歲月을 보내고 그데로文學을 계속할수잇다는 생각이잘못이다. 今日의文學은 散文學이요 散文學은 勤勞의 文學이다 精力에精力, 努力에努力을 蓄積하지안코는 到底히 今日의文學을 擔當해갈수업는것이다.

張德祚氏의『여름밤』(三千里)는어떠한가 夫婦가 사는家庭의 여름밤의 한風景과 거기에생긴 조그만 挿話를 적어낸것인데前半가튼데서 夫婦間의 對話를展開시켜가는 場面等에선 女性作家다운 섬세한감각을 投入하야 輕快한 맛으로나간것이 作者의 致富보형스나 作品全體로서는 좀크리-1는한作品의품격을 가추지못햇다. 내견

才

이作品이 겨우시작된것에서그처버린不滿이잇다. 이作品의 內容인즉은『안해』도 그가어떤心理와 性格者인것을 알수업고男便에대해서도 그人物에 집작이가지안는다. 그것은 이作品中에서 人物의 心理的인 要素가 未熟하게취급되고 不自然스럽다는데 그責任은 돌리여야 할것이다. 例를들면 여간지안흔팔에 男便이안해를 通賞하는 過程이나나 종에멍하니 모기장은 바라보고

누어잇는그의心理가作中說明으로선 어색하고 未熟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作品은 讀的으로 小品에 가까운 內容이점에서 이 作品에대하야 心理追求에대한充分한 說明을 要求하는것은 無理한일일것이다. 그러意味에서그 以上더 이作品의 成果에 대한 指摘을 하지안코 눈에띄우는二三의部分이야길 말하는데 서즈려고한다.

첫째는 남편에게責實을 當한 안해가 분해서울다가 그대로잠드는

場

面이다 勿論 어려운간에 오래동안 울다가 우는데 지치고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드는 경우는잇다. 그러나 금방 남편에게꾸중을듯고 울던女子가 그자리로 잠이든다는것은 天痴면 모르되 보통의경우론생각할수업다.

다음은 中間의남편의『서라안 백타안 타는데……』하고 노래가나오는데 이것은 通俗小說의 讀者의心理를 마추는데는 필요하지만 短篇에선 抽象的인說明으로代할곳이다.

또하나 적은적節이야기가막 김 군과열한시……』는 妓生과通하는꾀게를 作者는『니·네인』이라고는 하지안는다. 이런것은 적은것이지만 그러데도 作者의知的敎養이 讀者아페 나타나서 意外의 輕慶을 살때가 만타는것을 作者는 이저서는 안된다。

"悲風賦" (下)

李秉珏

핻지가며번이나 이엇드냐 오랜歲月을두고 나는도두繁한 實德을차자왓다 五十年옛달 祖上들이 옷고름을매술 그때 벌써 너와나의슬픔은 解纓하지안혓드냐 새삼스러운일이아니다 남들이보면 청서마술만큼 너는靑孀가튼 願念을가저섯고 나는鍜되히 차해지라고 열다섯해를 努力하야던이라

열세살어린도련님에게 갈는와 갓을쓰이고 집안이모히가운데서 祠堂에참물들피우던아칙, 冠禮가 끗나자 葛어머니는 오래만에맛보든幸福늘픗이겨 눈물을흘리엇고……며칠後 가마를타고 洛東江氷板을건너 너의집에갓슬때 열일곱색씨는 百里길에지처진新郞의 잡고대를 지키고안저서 唐紅치마주름을 헤아리다가 밤을

발혓더니라 三年이지난뒤 너는 나의집에왓고 나는 서울로 배우러 떠낫다. 어머니는 이마가 넓직한아들의 꽃다울앞날을 占치면서 絕色한紡績의 단장을기다렷고 너는 豊冊紡紗紙에다 파랑새를그려보냈느니라.

그러는사이에 十五年이흘러가서 나는 너의 파랑새날개를찌저버리고 엇사리 저바람工夫를 갓더라고 너잇는故鄕에가지안헛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훨신幸福된 사람이엿섯다. 어린男便을 기르고 귀여워하는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냇수잇섯스나 나는 사당마신에 [illegible]을가지고 사타와다.

올해도 맨자가익고 百日紅마저 자자지고 팔엇스리라 나는 도리가지안는다.

田宋等과함께 너의아페 美濃紙

國民의 [illegible]이라고 [illegible] 에자ㅎ게거리가 되는냐의 [illegible]을 [illegible]시르는것이아니냐. 맹기처럼 [illegible]은 平生을 보넣수는 업는가 겨우천령 웃는 한사람을 가지고 [illegible]수는업는가하고나는 [illegible]거렷스나 우리는두사이에 마즈막길을 事中에서 어머니는 [illegible] 어오라며 울고말엇스나. 신이 허어지면 압바졋다는어린것에게를 맹여나 이란 우리의 [illegible]을 [illegible]주지마러라.

이러케 귀동암이가 목노코우는밤。 기막히게 바람이 슬프다.

가지가지의 헤아릴수업는 靑春에 [illegible]이 떠러지녀서 견디기 어려우면 나는 [illegible]村사람에 가서 [illegible]을마시고 잠 [illegible] 하는것이다.

昨年가을에 보내준 明紬이불은 친구에게 주엇고 婚姻때만든 무명이불은 옷해 일에도 더 [illegible].

그러나 넌손으로지은 이불이라 차저야겟다면 닥처오는겨울이 무서워도 [illegible]다 나의體溫이 남어잇던이라 개구픈 因果의씨인지라도 자라는아기에겐 더욱게 해주자 아기는슬프지안혼 因緣을 차저 어버이들의傳說을 꿈이야기처럼 解得치못하게될게다

이러틋 서글프게된 가을이지라도 해여 우리는 祖上들의 約束은 원망하지말자 그때는 옷고름을 맺는것이 形式이엿단다 우리는 約束대신에 알뜰한 紹緣을 가지고 이가을의 風俗이라하자 장건 슬퍼지는 생각과 지나간 歲月에 엿우대처럼 마디마다 매처잇던 悔恨을 불살러버리고 청성스고 허텁 이러는 구시월대조업사귀처럼 러

第三回音樂콩쿨 審查後感

金載勳

今番朝鮮日報社 第三回音樂콩쿨에 내가처음 審査員으로 나가게되엿습으로 이機會에더 仔細히朝鮮사람이 音樂才操가 얼마나만흐며 또二十年前보담 얼마나 進步된것을 알게될을 퍽반갑게生覺햇습니다 事實 朝鮮사람은 音樂才操가 만흔것가틈니다 만흔우리社會에서洋樂에對한趣味나 或은關心은가질겁이 적엇기때문에 아직은 有名한歐米의 徒弟를 내지못함을 遺憾으로生覺합니다 또洋樂에는工夫할生覺을가진 學徒를爲하여는 조흔指導者가 만치못하엿기때문에 그進步가 떠러진것가튼 感은느끼나 그래도 그러한條件下에서의 現在樂界를 살피어볼때는 相當 朝鮮에는 天才가 만코나하는 感想을 느낌니다 洋樂이朝鮮에輸入된지가 불과 한三十年바게 안됨으로 그동안 훌륭한 音樂家가 날수도 업섯거니와 또事實어서기때문에 아직歐米諸國에 比할수업습니다

器樂을 工夫하자면 天才의 才幹을 가지고도 十歲以前부터 工夫를給作하여야만 世界的 스테-지에, 나갈수가잇슴니다 그러나 天才의才幹을가지고 十歲以前에만 給作하면 반드시 그러케된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才幹의 所有者로써 熱心히 工夫하면될수잇스겟다는것에 지나지못함니다. 十歲以後에 器樂을給作함은 벌써晩時之嘆을느낍니다

그러나 聲樂은 그러치안홈니다 聲樂은 十六七歲前後에 給作함이 適當한 時期인가生覺합니다 웨그러냐하면 대개 男女를 勿論하고 十二七歲前後에 한번變聲期가 됨으로써 그前聲帶는 完全한 聲帶가아니기때문입니다 어떤父兄의말슴들으면 天才를가진 子女를十歲以前부터 音樂工夫를 키고심흐나 그러면 學校工夫에영향이 잇지안흘가고 근심하시는분이 만호나 [illegible]입니다 만흔줄로 그러케는 生覺하지 안습니다 첫재로 小學時代에 學校課業에 영향이 미치기까지音樂工夫를 시킬수도업거니와 또그렇必要도 업스리라고 生覺합니다 十歲前後에는 될수잇는대로 音樂을『듯는귀』와趣味와 音樂의 理解와어른 만지는法을 가르키는 程度로

부터漸漸나아감니다 本格的工夫를 給作하여야만 될것입니다 中學을 卒業한後에 비로소 그 才操를 發見하야 音樂으로써 成功할수 잇겟다면 其時부터 정말 本格的工夫를 給作하는것입니다 專門的工夫를 每日五六時間以上 十年가까이 계속하여야그때에 비로소 世界的 音樂家가될수잇스리라고 生覺합니다 그것도 다만 天才에 限한것이오니 音樂이란 大體로 퍽어려운것입니다 現在나 過去의 世界的音樂家는 누구를 勿論하고 十歲以前부터 工夫를 給作하엿고도 每日五六時間以上 十年가까운 努力으로써 成功하엿다고 합니다

今番 音樂콩쿨에 入賞한 十四歲少年 李在成君을 봅시다 君이 바이오-린을 給作한지가 벌써 五年이 된답니다。 그五年間 잠깐도 눈끔져운或時는 기특하다고 하기보담가련하다고 할만한 程度의努力을 계속하엿기때문에 今番콩쿨에 一等賞과 朝鮮日報社長賞으로 入賞한것입니다。그러나 李君의 只今재조로 滿足할수가 잇느냐하면 그것은千萬不當한 말입니다。적어도前途十年間 파거의 工夫보담일층더 熱心히 조흔先生의 指導로 工夫하여야만 그時에비로소 바이오-리니스트로써出世할수 잇스리라고 生覺합니다 李君의將來는 가장 洋洋하다고 할것입니다

그다음 今番콩쿨에서 가장 놀란것은 聲樂입니다 그中에도 地方에서온 여러분은 참말로 조흔聲帶의 所有者이엇습니다만은 다만한가지 섭섭한것은 조흔先生의指導를 밧지못하야 發聲法이나 其他여러가지로 不備한點은 만흐나 그聲帶自體는 참말로 喜幸하다고 生覺하엿습니다 萬一그대로 조흔先生의指導를 바들수잇다면 조흔聲樂家가되리라고 밋슴니다

今番入選되지못한 여러분은 조금도 落心치마시고 조흔指導者를 어더 熱心히 工夫하시면 明年콩쿨에는 훌륭이 入選할줄로 밋슴니다

마지막으로 朝鮮日報社에感謝의말슴을 드리고자 합니다 朝鮮日報에서 朝鮮音樂界를爲하야 만흔努力을 하심을 音樂家여러분과함께 百拜千拜를 不懈합니다 이音樂콩쿨로인하야 朝鮮音樂界에 미치는 영향은 참말로 크다고밋슴니다 이와가티 조흔『찬스』를 여러분音樂學徒한테 朝鮮日報社가 주는것이니 여러분은明年콩쿨에 더조흔 成績을 내여서 歐米諸國에 지지안흔만한 音樂家가되기를바랍니다

新人短篇

夜寒記 (十)

許俊 作　崔根培 畫

그러나 그는 다시 어성을나추어 은근하게

「그러니 여보게 벌거어지안나 자네가 내게하는편지로 자네 글씨 멋자쓰면 되는겐세그려 자네 글씨 멋자 별러자는거야 자네글씨—그저 자네는 내동생이 그런줄험듯는데 아다시피 나는 어린것지에 배혀잇지안흐냐고 호소하는편지로만 내게하면 뒤딘날이야 그러면그뒤에야내가다안하려……

글세 여보게 아무리 형제간이면 정의감(正義感)이어야 업나 도덕관(道德觀)이어야 죽이나 자네는 그놈이 어떤놈인줄아나 그런놈을 이런때 주리때를 안앵기면 언제 앵기단말인가——벌써 한삼년된일이네만 여기 송명옥이라는 낫짝 변변한 기생이 하나 와잇섯드라네 헌데 어놈어 그년한테 바혓단말이야 그래 한참 대기다가 하 [illegible]하고 안주니까 그년생일날인데 이천원 소절수를떼여 보냇네그려 벌서 그럴알고 뻔수작이니까 오죽 잘 물어마즌일인가 그랫스나 기생년은 그러면 그래도 편찮다고한거니

코똥생이와 인감을 업신여기며 좌르르 코에서피가나와 입에서 피가나와 이러케 웃엇이 빨자혓것다 년도 술잔이나 들어간기운에 그랫것지만 허니 자리가자리요 그래도 사내자석으로나서 이런 통변이 어되잇단말인가 창피한김에 어놈도 벌떡 이러서드니 서랍에 그년 끄르게를쥐고 이리치고 저리치고해서 기생년을 불창모양을 해놧단말이야 어야긴 그렇세 그러고보니 기생년은 제가 무접 집착한일이나 게집의마음이오 그런모양육당한구 분하단말이지 이주일인가 삼주일지나서를 바처서 경찰서에 고소를냇네그려 허니깐 아모개가 아모개를 걸어 고소를냇대더라하니깐 그판에서야 왁자지껄할수박게—소위 금융조합조합장이오 면협의원이오 뭐요뭐요하는판이니깐 안그럿켓나 신문기자가 와르르 몰인가색이가 몰려갓네그려 고소가엇섯스면야 기사꺼리될거나 뭐잇겟나만은 지방명망가요 할만한일이거든! 그래 차저온 기자를에게 돈집원이나 던저주어서

까 그대로 입을떡고 가만잇슬수 업지안해겟서 헌데 이녀석 좀보게 그년집에서 자고 아침에 이러나보니 정신이벌짝 나단말이지 나오자마자다뜸 지점에 전화를걸고 자기가 아모에게 낸 소절수는밧지말라고 통지를햇네그려 그것도 괜찮은 일이야 허지만 그러구 팔엇스면야 무슨일 잇섯겟나 한때 챙피한번 햇슬뿐이지 남의 꽁룬여룸가? 그랫는데 그러케되고보녀이 소절수가 그러케되고보니 그래도 만히 치워난 기생이라 앗사리 물러보냇기회만 기대리고잇는판인데 하루저녁은 어진에서 몰르러와서 와보니 그놈의 패락말이거든 여럿이 와안즌자린데 다른놈들이 알고그랫는지 몰으고그럿는지 놀릴라도 그년울를을자고히 이놈은 또 제가한일은 이저버리고 실치안후게집이고보매 조라고해 해서 오게되지 안햇겟나 그래 술잔이오고가고해서 다들 취햇는데 「여보 조합장」하며 기생년이 그때까징 그런소리라고는 버추지도 안튼것이 그런고는 「선하심 호하심(先何心 後何心)은 물어 뭘하나 외소절수 새서보냇쥐부터 물으고서」하면서 제가 처를 나물하듯이 하드니 그런것이아니고 그아로쪽에 쏘치도듯을 소절수쪽지를 그놈의코미테 치바치면서 딱 한게 부치데그려하면 처다는것이 경황으로 어

이러저런 쓸쓸해버릴러그햇는데 보내고나서 생각하니 그놈들이 그것가지고는 아니될상시픈 얼골들이오 또그럴필요업다고 생각햇든지 그년석들을걸어 협박죄로 도로고소를 걸엇네그려! 그래 그년석들이재펴가 취조를 바덧는데 큰일은업시 나왓스나 신문사도 자기직원이 그사건에 시야비야하고 잇는이상 이러니저러니 신문에 쓸수도업게되지안햇겟서 그게그런놈이야그러케 무서운놈이야 그놈처구 하나잇는줄아나 친구하나 업는놈이야……아모리형제간이면 올흔건 올흔것 글르건 글흔것 어니것나 [illegible] 그리고 이자그건도그러커니와 그놈의사람이하는소리만나면 그것을그보지해 그까새에 들어가모두 [illegible]하게 해준건 이넬세그려 이내야」

하며 그는 주먹으로 제가슴팍이를 처가며 입으로 진 [illegible]를빼여멀어 그입술들이엿다 「그래것만 그놈은 이형한테 무얼햇겟나 여보게 이러케 고개숙을거트고 내말 줌듯게 저는 제형을 그러케 고맙게해주는 제형을 제집문직이만도 못하게 제집맨미러 막사리가는집에 너허노코 개몰구듯하로에번식 방맥이는것만 제일이라는군」

「동생이는 [illegible]듯키 이러면서 [illegible]를 부치올고 일변 코를 벌룩거리며 [illegible] 빼아내는것이다

駱山閑話 (上)

(續)(科)(學)(漫)(筆)

高工敎授 安東赫

平凡한山을 駱駝라고 稱한다。名稱의由來는勿論 山容이 此畜과類似한 까닭이다

駱駝는 異邦人의 珍獸이니만치 別別異名이다 駱駝(輿地勝覽)橐駝又는囊佗等은(周穆天子傳)槖牛(爾雅)封牛又는 峰牛(漢書西域傳)等의 名稱도所持하고잇다 北支에서는 上古부터駱駝하엿고朝鮮서도 上代에滿洲로부터通過하야 百濟를거처서 日本內地에 流入하엿다 和名抄에 良久太乃宇萬라하야 馬의一種으로 看做되엿슴은支那上古에 牛의一種으로 생각한것과比較하야 興味잇는일이다

駱駝는 柔順하고 忍耐力이만흔 有益한動物이나 其外貌가 怪異한탓으로 東西洋어디서나 評判이조치못하다 張華博物志에 齊相公北征時 駱駝가 水源發見者로 沙石千里 中無水 時伏流處人不能知 皆乘駱駝 知水脈過停 不肯行 以足踏地 人掘之得水

一의稱讚이오 平사의別名의로利用도되고(唐柳宗元 種樹郭橐駝傳)愚物의 代表者노릇도 하여(예 喻語)駝君의努力에比하야 名譽가相副치안는 境遇가만타. 그러나 아무리 溫順한駝君이라도 無理한侮辱을바들수는업다. 博物新編에 或人이駱駝를 鞭打하는

[illegible]駝이 잇섯는데 駝는別般 介意하는內色도업섯다 그러는中 어느날深夜人靜時에 其人의寢室에突入하여서 닥치는대로 물어뜻엇다. 多幸히 그는外出中이엿슴으로 大禍를免하엿스나 寢具는 主婦를 보고 [illegible] 上氣가되여死하엿다한다. 此話亦駝에對한喜說이나 其意氣를中藏하엿슴을 窺知할수잇다. 可畏可畏

沙漠旅行만이 駝의専門은 아니다. 周世祖(宇文氏)는 駱駝隊로 敵을 驚走시켯스며 唐太宗은 行軍中 糧秣輸運에駝를 利用하엿고 將軍 [illegible] 曲良翁은 駝峰炙의 嗜好者요 詩聖杜甫는 駝峰을 羨하면서 詩想을 練하엿다. 高麗太祖時에 契丹王이 駝五十頭를 獻上하엿더니 太祖는 胡物을 大惡하여 駱駝橋下에 拘留餓死시킨일이 잇섯다. 此醒政은 後世에 難問題로 理宗對徐齋先生討論에도 不得要領이엇스며 燕岩外史의 契丹이 無道하다들 駱駝何罪오?의 抗議는 駝君의冤을 千載下에 聲明하엿스나 어찌수업는일이다 駝의 同族으로 古記에 記錄된것을 紹介하면 獨峰駝又는 一峰駝 (Camelus Dromedarius)이다。

로 其產地는 大月氏國 十峯 兩峰駝(Camelus Bactrianus)는 亢良哈 即 滿洲產 白峯駝 晉移將軍西征에 乘用하엿고 日行五百里를 能히 疾走한다하며 風脚駝 金培先生事物類聚 所載 日行千里의 超特急이잇고

兩脚駝 滑國産의怪馬? 兩脚駝 亦滑國產의奇駝 等이 已往에 存在되엿다하니 只今은 其實在가疑問視되는것인데 好事家의蒐集을 待望하는바이다。

幼時를駱駝山東側마 [illegible] 하고生長한 筆者는 偶然한 機會로 駱駝西側에 投入한지벌서 十五年을 經過하엿다. 此山麓에서 讀書도하고 酒樽의味도 알엇고 師友와 配偶도求하엿고 아마今後도 駱山下의 一俗僧으로 度日할것이다. 駱駝山에 捕虜生活은大體로 淡淡無味하나 拋棄키어려운 滋味도不少한것 ◇

京城의東部 東小門으로부터 東大門까지에 岩石만흔 [illegible]

新刊紹介

▲中央新聞 十月號 發行所 京城馬場町六八九의七九 朝鮮新聞通信社 定價二十錢

▲한글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 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 一〇〇四四番 定價十錢

以堂 金殷鎬氏 個人展에서 自九月二十八日至十月五日於和信 (左)[illegible] (右)美人圖

旅人文化를차저서

湖南動脈榮山江 (3)
務安·木浦行

李常春

輿地勝覽羅州山川條에 "錦江津一名錦川一名木浦或南浦即廣灘下流"라하엿스니 昔日에는 廣灘下流를 木浦或南浦라 일커럿고 輿里志(英祖時李重煥撰)에 "靈山江西流爲務安木浦"라하야 靈山江이란 名稱이 비로소 보인다. 그러나 靈山江은 木浦上流의 部分名稱에 不過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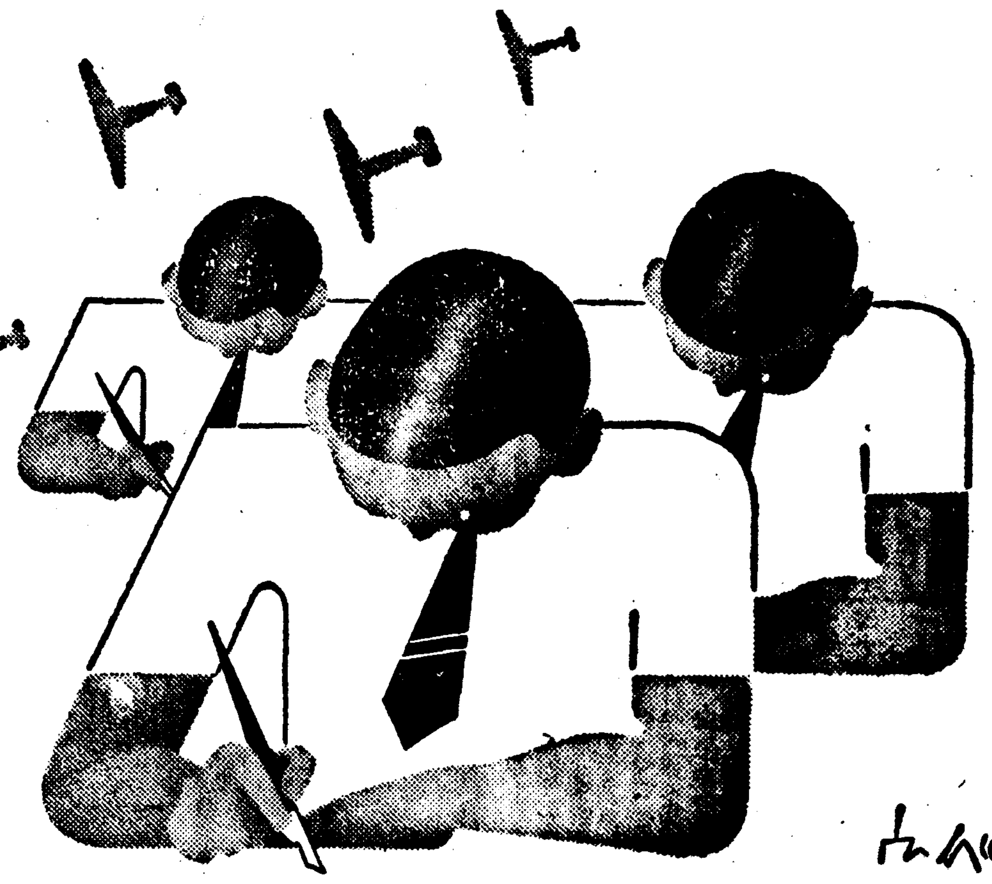
輿覽羅州倉廩條에"榮山倉在錦江津岸即榮山縣地收本州及順川(以下略)等官田稅于此漕至京師"라하엿스니 생각컨대 全羅五十七官中에 約其三分一인 十七官의 田稅米를 收納하던 곳이니 自然 船舶의 出入이 頻繁하엿슬것이요 따라서 榮山倉의 압江도 널리 알려젓슬것이다 그後 榮山倉에 榮山浦가 열리면서 榮山江의 名稱도 發展되여 江의 總名이된것이나 아닌가한다.

榮山江은 流路全長二三六キロ의 長江이다 따라서 支流도 여러갈이요 發源地도 單純하지아니하다 輿覽羅州山川條에『廣灘其源有八一出昌平縣無等山之瑞峯驛, 一出潭陽府秋月山, 一出長城縣白岩山, 一出蘆嶺, 一出光山無等山之南, 一出綾城縣呂站之北』이라함을 보아도 그 얼마나 複雜한가를 推知할만하다 江의發源으로부터 流下함에 從하야 그部分의名稱도 또한 놀랄만치여러이다 煩雜하지마는 出源地로부터 그流路를 略擧하면潭陽秋月山龍淵에서 出源한原栗川이 潭陽을 迂回하야竹綠川이되고 潭陽에서 流出하는 新川과 合하고 玉泉山에서 發源하는 大楠川과 合하야 潛江이되고 昌平古縣無等山에서 出하는 三支川과 合하야 潑川이되고 비川과合하야는 黃津이되고, 長城白岩山에서 出하는 黃龍川과 合하야 堅榮江이되고 瑞石江과 合하야 古來名邑羅州에 至하야는 廣灘이되고 西折하야 錦江津一名錦川又名錦江이되고 榮山浦에至하야 榮山江이라始稱하고 그다음이 回浦요 松只川과合하고 또 靈光高城山에서 流出하는 鶴川과合하고 또 그아래에서 泥梯浦(今新成平川)와 合하야서 沙湖江一名沙湖津이되니 어곳 輿覽에 이른바『大堀浦在縣東二十里 羅州錦江之下流 高麗時以此水爲南流三大之一』이란것이요沙湖江下流로 務安界에 入하야 新設浦(近來의名稱이지만)曲江이되고 그다음이 往昔 舶船廨所在地이든 榮山浦요 또 그다음이 後百濟王이 [illegible] 大將王建에게 擊敗하던

곳(俗稱夢灘이라는 夢灘一名夢灘津이요 儒者의德津, 西湖津을 左側으로 바라보고 서나려오다가 興覽에 頭靈梁이라稱한駐龍津(俗稱注龍)이되니 그 右岸에 龍津溟所라 稱하는것은昔日에 本邑이春秋로 致祭하던 祠址이요 여기서 東方不遠地는 [illegible]船舶의 [illegible]地이며 高麗末高僧 [illegible]國師의 出生地인 靈岩의 鳩林村을 가르치면서 一老面下塘 예전 極浦營址를 지나 木浦港에 入하야 島下島를 끼고 黃海에注한다. 榮山江은 湖南의大動脈이요 그流域은 有史以前으로부터 人民生活上 天惠의地帶이엇스며 三國時代로부터 交通乃至文化發展의 第一線이라할만하다. 어어래 榮山江流域의 史蹟의 一二를적어서 參考에供하려한다.

頭의痛症과疲勞에

ノーシン



長期戰!
頭腦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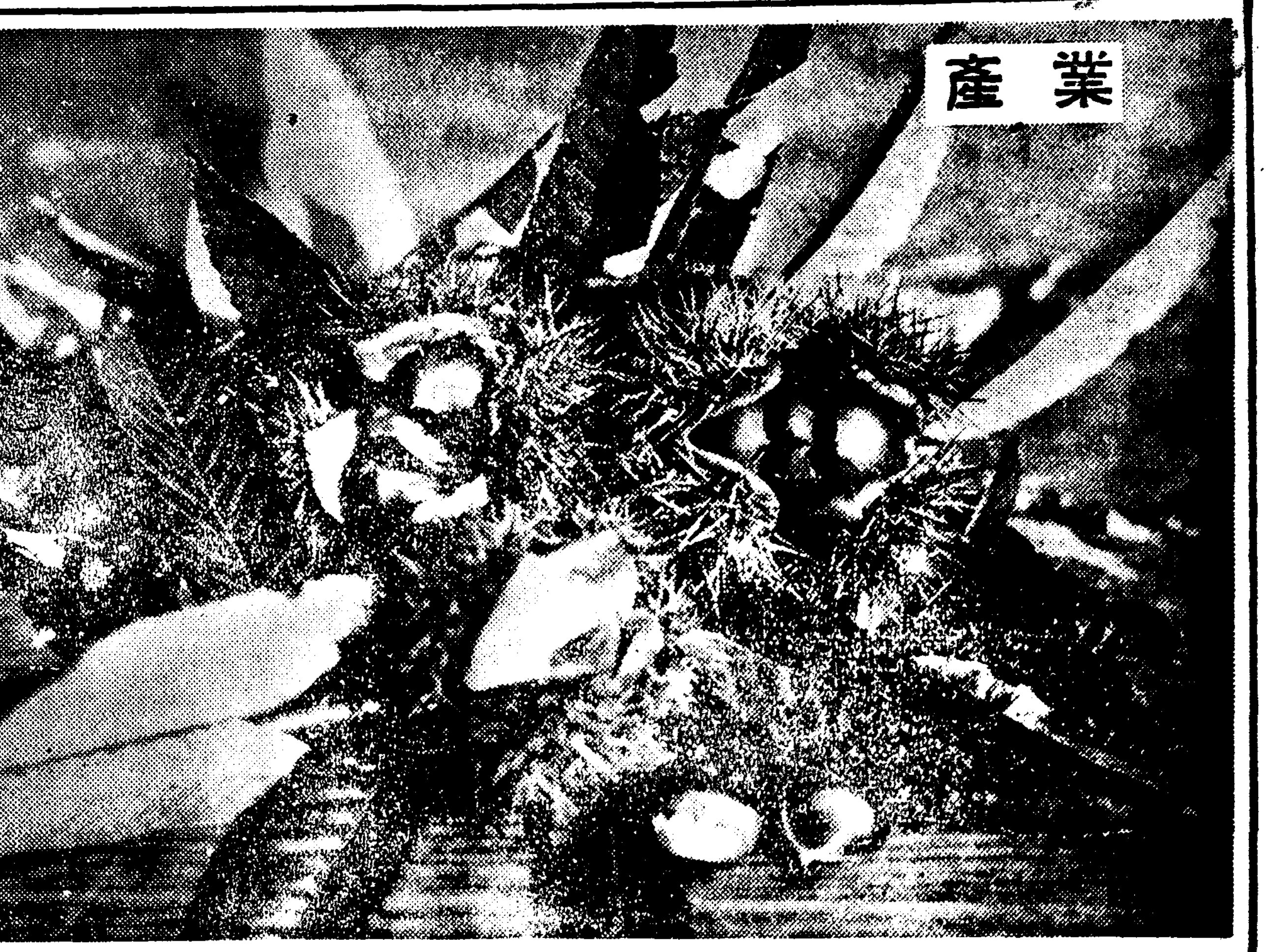
頭腦와頭腦가불이나게겨누는 擧國一致의長期戰下에頭痛과頭腦의疲勞쯤으로쉬여서는안된다
準備한ノーシン을먹고一刻이라도速히明晳한頭腦를恢復시켜서척척일을處理해주십시요

ノーシン의優秀한點은……
頭痛과頭重을速히解消함은勿論更히一步나아가서過度한執務와工夫、家事、裁縫等으로朦朧한頭腦의疲勞를速히恢復해서頭腦를明快케하는獨特한藥効를所有해잇는것입니다 그러고常用하면神經의榮養을조케하고心臟을强補하는숨은効果가잇는故로每日頭腦를酷使하는現代人의常備藥으로서最適합니다

主效 頭痛·頭重 頭腦疲勞·頭內朦朧 精神憂鬱·心氣倦怠 上氣·船車의醉
三十錢·五十錢 一圓·二圓
全國藥店에잇슴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戰爭은이제부터다 擧國! 前進하라



金屬代用"陶器" 其他有望한新生品 (一)

일직이 政府는 一切의 鐵品에 對하야 金屬類의 使用을 制限하엿는데 要컨대 그것은 이번 時局에 對應하야 軍需資材의 充實을 圖키爲한 金屬動員이 아닐수업다

그러나 우리 日常生活의 必需品에서 金屬製品을 除去할수는업다 이에잇서서 金屬製品은 最小限度에 이것을 停止치안을수업다 이러한 意味에 金屬製品의 代用品問題는 各方面에서 活潑한 研究와 그工業化가 開始되엿다

첫째 이에는 土木建築用品스위치 分銅 時計의 振子等의 鐵製品 [illegible] 用品等의 稀用品이 되여잇스나 一般家庭用具로서는 까스곤로、電氣곤로、스토-부、圖板其他 目下 研究된것이 적지아니하다

리구나이트

이것은 石炭(褐炭)의 瀝靑質(페놀)을 [illegible] 처리한것으로 먼저 그强度에 對하야 보면 一平方糎當 一、五○○瓩程度로 耐壓性도 相當히 强하야 陶磁器보다는 强하다 이것으로 齒車가튼 것을 만들때는 騷音도업고 [illegible]

페-크라이토

이것은 主로 [illegible] 代用이되는 것으로 [illegible] 十月에는 工業化되게되엿다 [illegible]

스토니-

스토니-라는代用品은 [illegible] 硬化시킨것이다

에라낏트파이프

이것은 [illegible] 金屬의 代用이되여잇는것이다 [illegible]

알미니움及 알마이트

알미니움은 其自體强한性이잇는것으로 [illegible] 代用品으로서 [illegible]

파이버-

[illegible] 新時代의 金屬代用品으로서 [illegible] 이라는데 [illegible]

農家의諸般管理

收穫은適期에刈取가肝要 養鷄는繼續淘汰更新

十月中의注意要項

季와行事 ▲九日甘露▲十五日銃獵解禁▲十七日神嘗祭▲二十一日寅讀土用

普通作物 早稻의 完熟刈稻期이다 刈取는 寒地에서는晩稻까지 黃色으로 變하고 穗頸에 가까운벼의 生氣가 잇슬때에 刈取하는것이 適當하며 早刈는 數量이 減少되고 遲延되면 胴割이 增加되며 또는 쌀(米)의 빗갈(色)이 損傷하게되므로 適期刈取가 무엇보다도緊要한것이다 乾燥는 品質을 優良하게 하려면은 稻架乾燥를實行하는것이 第一조타 脫穀調製에 對해서는 品質의 維持向上을 圖謀하기爲하야서는 農機具를 使用하는것이 必要하며 또迴轉脫穀機를 使用할때에는 너무强力으로서 脫穀하는것은 不可하다

春麥 은 今月이 이야 播種期임으로 好期를노치지말고 알맛게뿌려두는것이조흐며 其要論으로서 勞力不足을補充하기 爲해서는 整地에는 耕土機、播種때는 播種器를 使用할것이며 또 黑穗病 斑葉病等의 病害豫防이 緊要한데 其方法으로는 鹽水選種子에 對해서는冷水溫湯浸法을實施하야 豫防하는것이 必要하다 肥料는 大體로昭和十一年度와 同量으로供給하는 모양인데 適當히 施肥하는것이조타

蔬菜 前月에播付한大根白菜는中耕除草追肥病害虫의 防除外에 솎음을할것이며 솎구는것은 從來와가티 漫然하게行하지말고 葉과 莖의 色及形態가모두조흔것을 남기도록하는것이조타 追肥는될수잇는限度에서 自給肥料이나 國産으로使用하고 病害虫의 防除藥品도될수잇는限度에서 節約을 圖謀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即商品의支障이업는限 從來에使用하든 [illegible] 積極的으로 廢物을利用하고 [illegible] 豌豆를 水稻裏作으로栽培할라면은 今月下旬부터來月初旬에 걸처서 播種해야된다

果樹 梨、柿等의 收穫期인데 運搬、荷造을 注意할것은 勿論이나 今年은 못(釘)질사等의 荷造材料의 供給이 不充分함으로 [illegible]

園藝 前月에 播種하야 二年草及 球根類를 播種或은移植하는것이 適當하다 [illegible]

[illegible] 그대로 越冬하면 明春에 [illegible] 摘出하야 分散한다

養鷄 八月에 準備해두엇든 點燈照明과 飼料의配合에 依하야 産卵能率을 增加시킨다 換羽가 順調롭기만 하면 잘産卵치안는다 成鷄이나 다 今月에 드러서서도 依然히 産卵을 繼續하는것은 年一百五十卵以上의 優良鷄임으로 種鷄로서는 充分한것이니 種鷄舍에 收容해두엇다가 春季의 種鷄로하는것이 조흔方法이다

井邑春繭大豊作 共販出廻七千貫

【井邑】全北의 蠶業으로 그의王座를占하고잇는 井邑秋期蠶繭은 未曾有의 黑蟻의 繼續으로거의 絕望狀態까지 豫測되엿스나 蠶業家의 技術的向上과 郡蠶業係員의 適切한 指導로因하야 井邑共同販賣所에서만 十四日間에 共販된 蠶繭이 七千貫을 突破하엿다는대 今年春繭의 共販된 數量에比하면 若干의減少는잇스나 平均數量에 잇서서는 增加하엿다한다

麥類增産强化코저 適期播種을勵行

擴充目標는十三萬四千町步 比前年二萬町步增 (全北道)

【全北支社發】非常時國策上 必要不可缺한 産米增産計畫에 一路邁進하는 全北道에서는 銃後食糧의 充實을期하기 爲하야 麥類增産을 强化하는 同時에 適期播種을 勵行코저 道農務當局에서 別項과가티 作付段別擴充目標를 세우고잇는데 今年度作付段別總計는 十三萬四千町步로 前年度에 比하야 一萬八千五百三町步나 增加하게되리라는데 田作五萬九千百七十町步 畓作七萬四千八百三十町步를 目標하고잇다는바 그內譯은 다음과 갓다한다

作付反別

▲完州郡 一四一○一町步 鎭安 八○二三 錦山 七八三五 茂朱 五一三○ 長水 四○○七 任實 八一三六 南原 一○二二○ 淳昌 八五一八 井邑 一四一九三 高敞 一二八三 扶安 八八○七 金堤 一四八一九 沃溝 七九七一 益山 九六四七 計 一三四○○○町步

麥種類別作付反別

▲大麥 四○二九○町步 ▲小麥 六四七七 ▲裸麥 八六二四一 ▲燕麥 九九○

以上과가티 作付面積의 擴充을實施하는 同時에 並行的으로耕種方法의 改善을 徹底히 指導하리라고한다

完州堆肥審査會

【全北支社發】完州郡農會에서는 來十月四日에 堆肥增産審査會를 開催하리라는데 當日에는 管內十二個面을 八班으로 나눈後 各技術員이 現地에出張하야 審査를 行하리라고한다

叺織競技大會 平南代表兩名決定

【平南支社發】十月十四日京城遞信局監理課分室前廣場에서 開催되는 全朝鮮叺織競技會에 平南代表로 出場할選手는 江西郡草里面崔貫奎(二七) 崔信奎(二九)의兩君으로 決定되엿는데 各道一名式의選手가 參加하야 競技을하게된다고한다

燒酒販賣容器 洋樽으로統一

酒造의統制와一齊히實施

【舍人】平南 平壤稅務監督局에서는 方今管下西鮮三道의 燒酒의生産販賣統制를 强力實施하고저 各地酒造組合聯合會를 開催하는等 大奔忙中인바 요사이또 하나統制를 加하기로 方針을決定한것이 잇는데 그것은 燒酒容器를全部洋樽으로써 統一시키게된 것인데 이것도亦是當局酒組의方針實施와가티 施行키로 決定한바 特히在來燒酒小賣商側은 以來石油罐等을 利用하든만큼 今後左記樽代負擔은 더하게 되엿다고한다

一、一斗入洋樽、三圓內外

二、五升 〃 二圓內外

朝鮮고무를 販賣組合結成

不遠配給도開始

朝鮮內에서 使用하는 靴用고무를의 配給에 對하야서는 總督府로부터의 指示에依하야 業者間의 配給統制、需給調整、價格公正을 圖키爲하야 數日前朝鮮고무를販賣組合이 結成되엿다 同組合은 朝鮮內의 靴機業者 販賣業者 內地의業者로 組織되여 總督府가 指定한者와 內地의業者가 特約店이나 代理店을 有하는者로 朝鮮에서 直接營業하면서 販賣하는者로 組織되여 目下는 十九名으로 組合長에는 三井物産京城支店外 四名 監事二名으로 臨時事務所는 爲先 三에스商會에 두기로되엿다 그런데 其配給方法은 精米業者가 一個月의 所要數量을 米穀檢查所에 申込하야 割當量을 바든後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種類를 要求하든지 組合員인 商店에서 買入할수잇게되엿다한다 그리고 購買價格과 買入價格은 五日同組合規約의 總督府의 承認이잇는대로 決定되리라한다

咸南水産業의王座 鰮油粕移出狀況

昨年만도一千三百萬圓突破

【元山】咸南水産工業의 王座를 차지한鰮油肥工業은 每年旺盛의一路를 밟고잇거니와 이鰮油肥의生産增加와 同時에 每年移出量이 增加하고잇다

鰮油移出表

年別	數量	價格
昭和六年	[illegible]罐	[illegible]圓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六○○、四○○	一三八一、三二一
昭和九年	四○一、一三三	[illegible]
昭和十年	一三○九、八三○	[illegible]
昭和十一年	一四五九、一七○	[illegible]
昭和十二年	一六五九、○四○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鰮粕移出表

年度	數量	價格
昭和六年	三一○、○四○俵	八四二、○四六圓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以上과가티 鰮油移出量은 昭和九年까지는 五十萬貫內外를 上下하다가 十年度부터 一躍百萬貫以上을 突破하야 十二年度에는 百六十五萬六千四百七貫에 達하얏스며 鰮粕移出量도 鰮油와 가티 昭和十年度를 契機로 一躍三十九萬俵를 넘어서 昨年度에는 六十三萬八千七百六十八俵에 七百十三萬七千九百四十三圓으로 올러갓다。그리하야 十二年度에 鰮油肥의移出量은 千三百二十三萬一千二百六十六圓에 達하며 過去七年間의 鰮油肥 移出量은 三千六百八十四萬六千二百二十一圓의 巨額에 達하야 咸南産業部門에서 鰮油肥工業의 面貌를 如何히 發揮하고잇다 그런데 鰮油移出은 東京 大阪 神戶 興南 淸津 等地이고 鰮粕은 橫濱 阪神 名古屋 關門北陸等地라고한다

朝金聯의秋肥 配給斡旋高

金融組合聯合會의 十二年度秋肥의 斡旋數量은 九萬二千八百五十一叺으로 그金額은二十八萬六千七百圓으로 內譯을 示하면如左하다

硫安	一六、○二五叺	
硫燐安	一、二三四叺	
過燐酸(二五)	九七、一八五叺	
過燐酸(一九)	五、五○○叺	
過燐酸(三○)	八○○叺	
調合八號	一、六一○叺	
撒豆粉	六叺	
石灰窒素	五○○罐	
計	九二、八五一罐	

朝鮮타일作業

【平南支社發】前者에 創立을본 [illegible]

富川郡各面의配定叺 八十五萬枚

【富川】 [illegible] 仁川을 회와고잇는 富川郡에서는 해마다 仁川港이 消費하는 가마니의 大部分을供給하야오던바 今年에는 여러가지事情으로 그需要가 激增하야 생산을 激勵하고잇스므로 增加할것을 豫想하야 配定하야 그生産에 責任數量을 配定하야 督勵하는바이데 價格도 例年에比하야 썩 高價이므로 一般은 自進하야 가마니를 짜는테 이곳에 特記할것은 從來에 쌀을 주로 생각하고 가마니를 짜는일들도 一齊히 가마니를 짜기시작하야 밤이면 가마니짜는소리가 요란하다

어제 各面에 配定된 枚數를 보면

文鶴面=一萬枚、南洞面=三萬枚、蘇萊面=八萬枚、桑砂面=十萬枚、霽丁面=八萬枚、富內面=十萬枚 [illegible] 西串面=十八萬枚 [illegible] 二十七萬枚 [illegible] 八萬枚 [illegible] 이가마치기는 비단 富川郡뿐이아니라 金浦 始興等에도 相當히 만흔生産이 잇다한다

慶州棉花共販

【慶州】慶州郡內의 棉作은 當局의 熱誠잇는 指導와 郡民의 自覺에 依하야 面積一千二百十四町七反步 收穫豫想一百十五萬二千七百斤의 好成績을 거두운바 九月二十七日부터 郡內八個所의 共同販賣를 一齊히 開始하엿는데 今年市勢는 每斤十八錢이며 첫날의 出廻成績이 매우良好하야 總販賣豫想三十萬斤을 넘어히 達하리라한다

慶北道棉共販 好結果示現

【慶北支社發】慶北道內今年度棉花作況은 旣報한바와가티 平年作以上으로 共販開始以來 不過十日未滿에벌써 百五十餘萬斤을 突破하엿다고한다 卽今年度慶北道棉花共販目標는 二千二百萬斤인바 지난 二十九日現在 百五十七萬一千五百四十六斤을 突破

江陵道有林賣却 兇里山外三個所

【春川】江原道에서는 지난二十六日午前十時에 通川郡에잇는兇里山道有林外에 三個所道有林의 賣却處分을 行하얏는바 方法으로는 入札을바다 最高價로 落札된바 그所在地와 面積代金等은 다음과갓고 江陵、寧越에 所在한二個所는 最低價格에 該當치안허 다음으로미루엇다한다

兇里山道有林(通川郡)六十五町八反、代金四萬一千四百五十圓

飛鳳山道有林(麟蹄郡)十七町三反五畝 一千圓

梓山道有林(華川)三十一町一反 九百圓

蝦蟆山道有林(金化)十町一反 八百圓

鐵·銅·니켈等의 鐵金屬全部出征

알미니움만銃後死守

❶ 代用金屬

金屬資材를 戰爭遂行에 必要한만큼 提供할려면 强力한消費統制가 必要하게되므로 鐵、銅、鉛、亞鉛、니켈、白金、알미눔、마그네슘、크롬、망간等의 各種鑛物의 民間需要를 一切許可制로 [illegible] 製品에 對해서도 不急한것은 [illegible] 及一般家庭에 잇서서 廢物利用에 無關心한 資材의 廢棄阻止 [illegible]

「遂行」에 必要한만큼 提供할려면 强力한消費統制가 必要하게되므로 [illegible]

「制限」 [illegible] 銅에 對해서는 [illegible]

[illegible] 我國의 金屬資源은 自給自足을 不許하므로 모두가 無리고해도過言이아니다 [illegible] 金屬의 中樞인 鐵도國內生産은 單只六割七、八分、産銅量이 自稱하는 銅이五割 [illegible]

代用品 ⑳

「事變」이長期化함에따라서 物資는去益乏되여가는데 最後의 勝利의榮冠을 得하기까지는 國民은一日三次의 食事를 二次로縮少시키고서라도 最後의 勝利를엇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 彈丸의素材되는 軍需物資의 不足함이업도록하려면 國民으로서의 義牲할것은 勿論이나 金과物의 節約特히 金屬資源에 [illegible] 我國은 鐵物을 節約하기爲해서는 一層努力을 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 [illegible] 政府의 使用禁止 消費統制等의實施로 多大한 影響을 밧게되며 鐵物에對한 價格은 暴騰하게되엿다 어떤因하야 京城은勿論各地方에서 奔走히 屑鐵을모으는風景이 눈에자조띄이게되엿는데 其理由는우리가모두 더잘아는것이다 [illegible]

[illegible] 下하기에는 十常여다 修繕을하라면은 最初의購入한價格과 맛먹는形便이므로 左右間鐵物의 飢饉狀態다 그럼것이 我國의金屬資源은 實로 貧弱한것으로서 充分한 需要를充當하기에는 全部가 輸入에依치안흐면 解決할수가업다 [illegible]

라는提言과 屑物一戶一品獻納運動一步前進하야 金屬代用品으로서는 "메-크라이트"나 銅보다『强靭』한 『高力陶器』等여러가지의 話題를 提供하고잇다 여러분의 家庭에도 屑物購入商들의 往來가 激甚하여젓슬것이다 [illegible] 사가게되엿다 特히 銅製品이면 [illegible]

"江陵감"大豊登

【江陵】江陵名産『江陵감』은 去今七年前겨울酷寒으로 大槪의大木들이얼어죽은以來로 그에對한 影響으로 每年部分的으로 박게結實되지안허 이數三年來로는 全般에亘해서年年히 大凶을 거듭하고잇는바 今年만은 隔年結果의原則도復活되여 未曾有의 大豊登을 보이고잇다한다

蜀黍共同販賣

順天郡農會에서

(舍人)平南、順川郡農會에서 年年히 農作物中에는 大小麥과大豆等을 共販實施하여왓는바 今秋부터는 特히、蜀黍(수수)도、共同販賣를 開始키로 되엿다는데 共販日場所는 아직未定이나蜀黍購入도亦是 順川産業組合을 動員시키기로 되엿다고한다

全南棉花共販

十月十五日부터開始

【全南支社發】全南道棉花共同販賣는 十月十五日부터 一齊히開始하게되엿다는데 今年共同販賣에出廻할 實棉高는 三千五百萬斤가량인바 今年은 支那事變의 影響으로 出廻量도 昨年作以上으로 豫想되고잇다 [illegible]

長城米穀統制組合 第三回定期總會

【長城】지난二十八日午後二시에 全南長城郡米穀統制組合第三回定期總會를 組合長 朴鍾萬氏의司會로 十四年度 收支豫算 三萬三千一百七十四圓을 無事히 通過시키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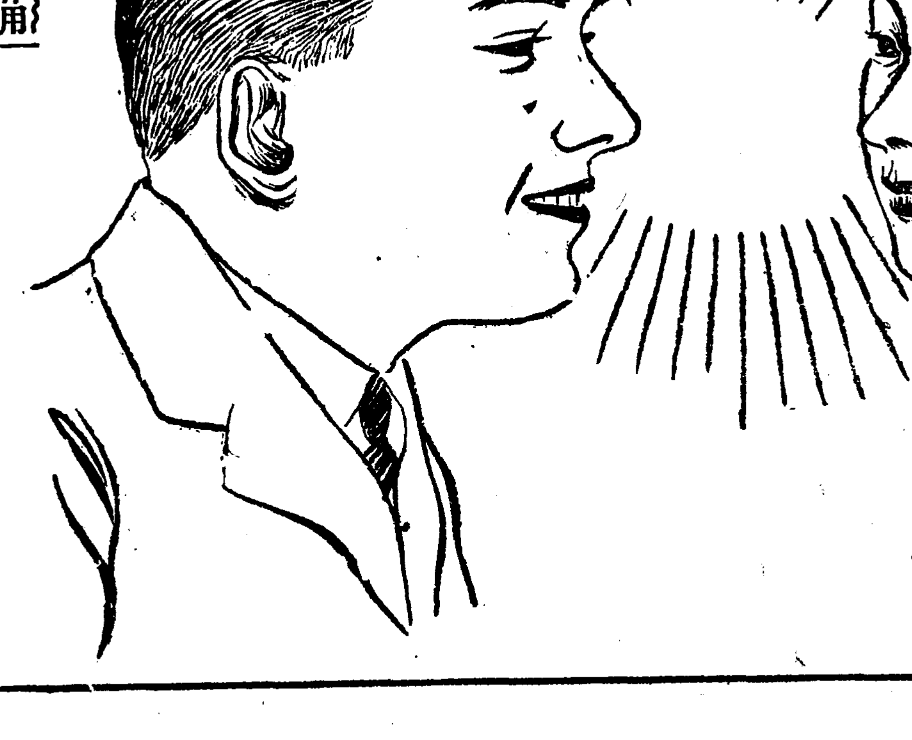
商品市勢

四日

▲果實類 / ▲農産加工品 / ▲農藝藥品 / ▲穀用叺及繩 / ▲肥料 / ▲家畜飼料 / ▲穀物 / ▲家畜類 / ▲海産物 / ▲菜蔬

[illegible]

生殖機能再生强化 精力減退刺戟促進



一回에단五粒만먹으면 青春의氣分이소사나는 대번듯는强精素

醫學界權威 日獨醫學博士 羽太銳治氏 發明

キング·オブ·キングス

驚異的五大特徵

一、動植物「性호르몬」兩成分配合 協力의効果로因한性障害諸症狀短期快復

二、生殖機能에根本的徹底治療가 되므로一時的이아닌精力의持續을엇는다

三、青春의氣分이忽然히發露되며 早老無力을곳擊退하야人生을기뿌게한다

四、適確한藥効가服用半時間後면 알게되는科學的快速한最優秀作用이잇다

五、副作用全無하며服用容易하고 强精回春劑로서는奉仕的인低廉藥價이다

(가)本劑의藥理的作用

本劑는 人體에補給하면 約十五倍의作用을하는 雄性動物의生殖腺內分泌素『性호르몬』과 嚴密한藥理로 實驗効果가 證明된 强陽植物中에서 抽出한 有効成分을 合理的으로 配劑한後兩成分의協力効果가 人體에快速히 發現되도록 某藥品을加入하야製劑한것인바 藥理的原理로나 實際的効果에잇서-도 理想的으로된唯一無二한 强陽回春劑이올시다

本劑는 神經生理學的作用과內分泌學的作用의 二重作用이倂有하야 前者는脳神經及全神經組織에作能하므로 神經細胞의活動力을旺盛케하며 後者는 性精力官能의中樞인生殖腺機能의 障害된것을一掃하야 强健狀態로敏速誘導하는고로 多何한性的病症을勿論하고 短時日에一時的이아닌根本的快復을엇는同時에 그에따러早老無力을 昔日의一夢으로빠케하며 期待한바의目的을 達成케하야 人生을다시 青春의歡喜로충케한다

適應症

早漏·陰萎·性慾減退

遺精·夢精·早老無力

疲勞·倦怠·不眠頭痛·神經衰弱

注文은直接本舖로

한번에 단다섯알만 먹으면早老無力症을 不知中에 업서지게하고 人生을 기쁨의것으로 다시돌게하는 이러한약을두고 一去하야 不再來하는 貴重한一生을 헛되이 보내리까 [illegible]

[illegible] 本舖에서만 直接販賣하오니 服用하시려는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振替로나、또는小爲替、或은代金引換便으로 注文해주시면 急送합니다。送料는 四十七錢이오바 本報讀者에限하야 送料中二十二錢을 本舖에서 부담하오니 十五錢만 加算해주시되 代金引換便注文은 送料十五錢을 郵便切手로 先送해주십시요

(滿洲國은現金先送要)

藥價 小瓶(一○○粒) 二圓 中瓶(二八○粒) 五圓 大瓶(六○○粒) 十圓

東京市芝區濱松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illegible]

(振替東京七七一二番)

大築港工事와併行 都市計畫도立案

舊邑을中心으로二里四方에 一躍大都市化할端川

【咸南支社發】누보=함남단천항(端川)을 함남도가 주체가되야 기채또는 저리사금을 융통하야 일천만원의 거액으로 축항(築港)키로 결정하얏다는것은 주지의사실이거니와 이보도는 북조선일대에 큰센세슌을 이르키고잇다

이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아직도발표를 하지못하고 잇스나 탐문하면 이계획은 단지축항뿐이고 이축항에 따라서 대단천의도시계획도 병행하게 될터이라고한다 이도시계획의 내용은더욱 알수업스나 축항으로인하야생기게될 일백구십만평은 대개오지에서 반출될 광산자원임산자원을 원료로하는 대공장이서게될것이며 저장창고(倉庫)등으로 동해안 제일의 위관을보이게될것이다 목하이시가지 계획안에 대하야 신중히연구중에잇다고하며 일본해호수화의 중심항배할기지로서의 북조선"루ー트"의 주요한 포인트인 단천은 허천강수전(虛川江水電)의 풍부한 전력을 가장단거리로맛게되야 여러가지의 호조건을구비하야 일약 북조선제일도시로 등장케될것이다

이번도시계획은 구단천읍중심으로하야 매축공사지를 포함하는 이십리사방은 불둥구역이될것이며 그가운데는 현재철도선로의 이전도 중요한조건으로 포함될것이며 가로(街路)등시구개정으로 근대도시를 자랑케될것이라고한다

住民의築港運動은 至今부터二年前

이제 이거대한계획이 발표되기전에 이계획을하기까지의 경위와 또지금주민들의 활약의자최를보면 다음과갓다

단천항의수축의 소리가나기는 재작년사월십일 단천어업조합이 설치되면서부터 제일현안으로수축이라는 스로간을 내걸고서그해오월이십이일 그조합 총대회(總代會)에서 수축운동 촉진에 매진키로 결의되얏다

이제단천군의안을보면 해안선일백여리에 륙천여명어민이잇는대 이제까지 완전한어항이업서서유감이엿다

이리하야 그해유월 이십이일 사포진(沙浦津)여해진(汝海津)을비롯하야 연안각진(津)에서 진민회를 열고서 다시 이것을 확대하야 그해칠월일일 단천읍에서군민대회(郡民大會)를열고 단천항수축기성회를 조직하고그동안 기회잇는때마다 당국에진정하야왓다

함남도에서는 작년사월부터이에 착안키로되야 안천(岸川)전토목과장이 현지에 출장조사한뒤 작년십일월경 대개기초안이 되얏다고한다 계획에서 세계되자 총독부에 토지수용령적용의 수속을 마치게되야이에 발표에 이르게된것이라한다 그리고작보와가티 소요토지매수도 착착진행되고잇다한다

大端川建設을따라 端豊線急速實現?

이번 이계획안은 주로 단풍철도의 풍부한 광업자원과 임산자원을 개발키위하야 또는이계획안의 축성에 박차를 가하게된것은 허천강수전의 대공사라할수잇는데 탐부컨대 이축항을 완성하는동시 또동철도를현재의 종점홍군(洪君)으로부터 혜산까지 연장하게될것이며 일본내지와 함남그리고 장백(長白縣)을통하야 만주국의중심부를 직통하는 최단거리(最短距離)의 일선만"경제벨트"의 완성을 보게될것이라고한다 이런의미에잇서서 산업내지국책적으로 그의의가 극히수요한것이 아닐수 업다고한다

郡民의宿願漁港은 汝海津으로指定?

별항군민들의 수개년을 두고서 간원하던 단천항의 축항은 실현을 보게되엿는데 이것도국책적사업이고 이에서 문제될것은 다시 일반어민의 생도를 좌우하는 어항(漁港)의 문제라고한다 이것은 아직도 확성되지안흔듯한데 대개 량항(良港)여해진(汝海津)을 축항하야 일대어항으로 등장시키지안흘까한다 어항수축은 도재원으로서도저히 도비보조 또는 국고보조라는것은 불가능하나 어민들이 자담하야 이것은 수축토록될것이라고한다 그리하야 여해진의 어항수축도 실현되면은공업지대 대단천 어항여해진으로 함남의 해안은 흥남 홍원 산 문천 고원등 대공장지대로 명일을약속케된다

自動車移動郵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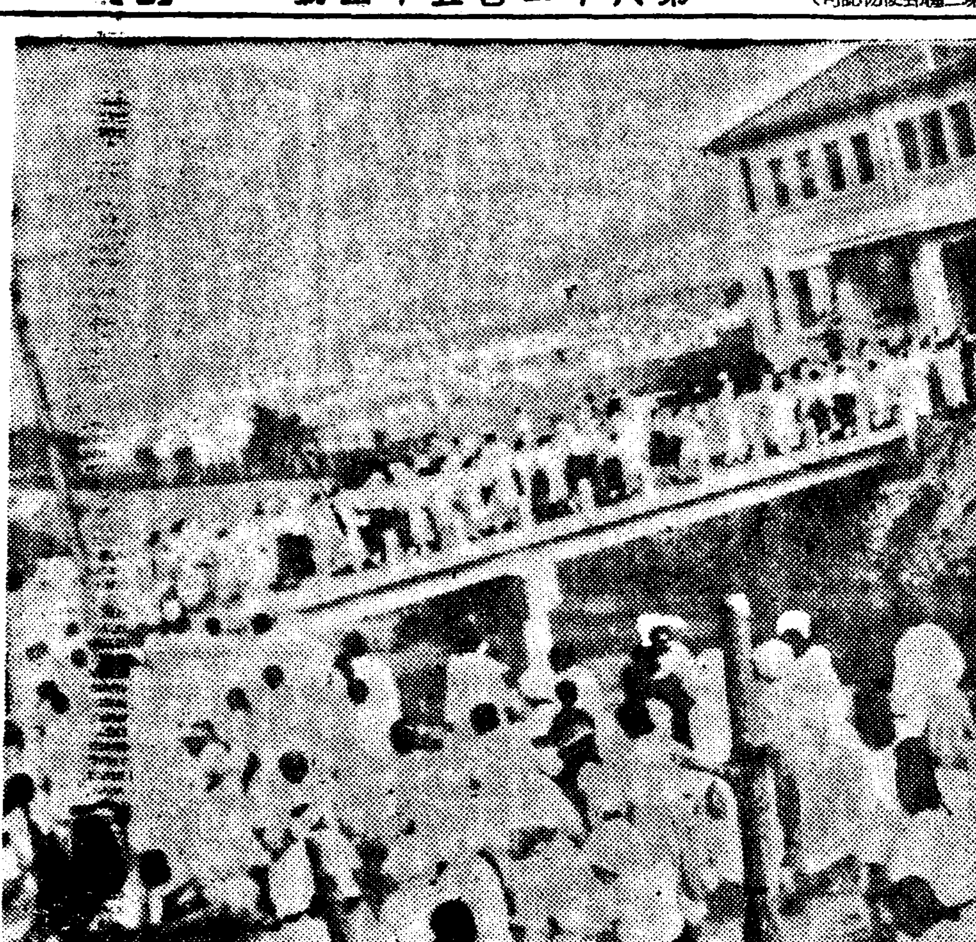
木浦米穀大會開催中에實施 電信電話까지取扱

【木浦】목포우편국(木浦郵便局)에서는 오는이십이, 삼양일에목포에서 개최되는미곡대회(米穀大會)에 대하야 특별써비스의방법을 연구한결과 조선에서처음보는 자동차이동우편국(自動車移動郵便局)을 대회기간중에설치하야 대회참석자가 어데로간든지 그꽁문이를 따라다니면서 이동우편국자동차내에서 참석자의우편, 기념스탬프, 전보, 전화, 소포등을 모두 취급하야 원방에서온 손님들에게 우편국으로서 특별써ー비스를 하기로하고 벌써부터 체신국(遞信局)과 교섭중이던바 대체로는 실현되리라한다

强盜團一網打盡

江東、自作嶺犯行自白

【平南支社發】지난이십구일오전한시경 강동군 고천면 천곡리(江東郡高泉面泉谷里)부호이항삼(李恒三)집에 세명의 강도가침입하여 내지 식식도로서 주인을협박하고 거금을 청구하다결국저지(麗池)한개를 강탈도주한일이잇서 강동서에서는 범인을엄탐하는일방 묘(文)사법주임은 용의자를 추적하여 형사십명을대동하고 평양에이르러 활동을전개하는등 어마어마한 수색진을펴려고잇섯는데일일오후세시경 강동군 고천면열파(閱波)주재소관내산중에서 소원이 수상한사람을추격하여 괴한일명을 검거하엿던바 그자는 동면서리(東面西里)불량청년 김리황(金利璜)(三)으로 전기범행을 자백하는 동시에 공범두명이 평양에가잇스믈 자백하엿스므로 평양에서 문사법주임의 수사대와 평남경찰부평양서 사법계가 협력활동한결과부내 창전리(倉田里)백사십육번지 이윤호(李允鎬)방에서 강동군고천면천곡리 김구송(金龜鋪)(三)과동면열파리 김진국(金鎭國)(二)양명을 검거하엿는데그들은 전기 범행뿐 아니라 기보한 구월삼십일 대동군율도면자작고개(大同郡栗道面自作嶺)에서 동면건지리(乾芝里)김동현(金東鉉)(四)을 식도로 협박하고 소판도배두십일원을 강탈한범행과 특히김리황은 소화십일년칠월십일밤 강동군고천면선광리(先光里)황기준(黃基俊)의집에침입하여 현금육십여원을 강탈한것 고천소학교에서 축음기를절취한것이외 수건을자백하여 여죄를 엄중추궁중이다



大部隊의匪賊襲來

自衛團員二十四名畢竟死傷

通化省下同胞村受難

【奉天支局特信】지난달 이십구일오전령시경 통화성휘남현제오구신이차구(通化省輝南縣第五區新二岔口)조선농민 삼십여호가 거주하는 부락에 비수 전주인(全朱忍)이하 팔십여명의 비적이 습래하야 자위단(自衛團)과 맹렬한교전을한결과 자위단원 사칠명 부상자십칠명을 내이고 삼십여명이 출동하야 비적과격전한결과 동오전두시경에 격퇴시켯다고한다

出獄五日만에 또監獄으로!

【木浦】강욱방에서 목에무친온모지를 고대로 강욱방에다가 도루팔게된 딱한소년이잇다 본적을 여수군남면(麗水郡南面)에두고 거주는 장성군장성면성산리(長城郡長城面聖山里)에잇는 정창석(鄭昌錫)(一九)이란소년은 절도와 사기죄로 인천소년형무소(仁川少年刑務所)에서 일년육개월의 형기를마치고 지난달이십유일에 출소한 그바로 광주(光州)에와서 시가로도라다니며 손매럽한것을 물색하다가, 황금정(黃金町)에서 자전거한대를 훔처타고 목포와서 지난일일밤에 시내를배회하며 범죄구(犯罪口)를 찾다가 목포서원에게 체포되여 목하엄중취조중이라한다

洪原育英小學에 六氏自進寄附

【洪原】당지 육영심상소학교(育英尋常小學校)는 지난사월에육년제로 승격한후 면목을일신하야 도내모범사학교(道內模範私學校)로 홍원교육계에 명랑한빗을던저 내용의 정비와 설비의 충실을위하야 유지들의 성원을 요망하야오든중 작시월일일 주기재정회가 다대한 성과를 어더 일반의 찬사가 만흔데 이교의장래를위하야 전기육유지의 기부금(一千餘圓)을 자진기부하엿다는데 일반은 유씨의 쾌거에 감탄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崔中康氏三〇〇圓 金仁俊氏三〇〇圓 都明洙氏一〇〇圓 宋鵬和氏五〇圓 李鳳洙氏五〇圓 金寅洙氏는교사일이 부족할때나머지를 전부담당하기로 하엿다고한다

鮮滿移民部落에 簡易校二個認可

【咸興】함남갑산군 운흥면(咸南甲山郡雲興面)내 산지대에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에서는 작년추기와 금년춘기량기로 분하야 오백호의 이민(移民)을이식하고 리상적조합을 건설중인데 금번 봉두공립심상소학교부설간이학교(鳳頭公立尋常小學校附設簡易學校)가 원암(元岩)보안(甫安)양분구(分區)에 설립일부로 인가되어 오는시월일일에 개교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한다

흥 [illegible] 자하중 군의 발전을하엿는데 뿐하 을 까고에 어떠어떤 [illegible] 거는 흘러엇는 조흥소식이라고 한다

崇賢女學校隆運

三日附로當局小學校로昇格

平壤私學界의明朗報

【平南支社發】약진하는 평양사학계(私學界)에 낭보(朗報)도한가지—평양부상수구리(上水口里)장대 재미태"크라식"한교사를 자랑하고잇는 평양숭현여학교(平壤崇賢女學校)는 삼일부로당국의 정식인가를어더 소위『잡종학교』의명을벗어나 당당한소학교로 승격되엿다 이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삼십삼년전 아직여자들은 대문밧글나오기를 꺼려하든 명치사십이년에 창립되여이래 수많흔 어린여성을 교육하여오든중 소화구년에 현교장김려일(金麗一)씨가 취임한때부터 교세는 일층융성하여 그해에장로교회의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인가되고 (숭현문제도 사실은 재해결되엿든것이나 장로교파의 신사참배문제때문에 오날까지끄러오던것이 전번총회로서 최종의 해결을 보앗기때문에 이제서야 어거리 정식인가를 보게되것이다 현재는 육학년육학급의 사백이십여명의생도를 교장이하일곱선생이 전력을 다하여 가르치고잇는데 승격을 계기로하여 학교당국에서는 교사신축 내용충실등 새출발에 복그러지안흔 계획을 착착실현시키고잇다(사진은숭현소학교와김교장)

大邱府方面委員 活動方針을檢討

【慶北支社發】대구부 방면위원(方面委員)이십여명은 부내세궁민구제에 적극적활동하고잇섯는바 지난일에 부세가확장되자 일동그기쁨을 인하하기위하야 오는일일오후세시부터 공회당(公會堂)에서 예회를열고금후의활동방침을 협의하리라고한다 더욱동석상에서 금하일천칠백여명의 빈민에 시료한동산병원(東山病院)원장이하 직원일동을초대하야 부사회계에서 사의를표하기로하엿다

國際列車北京行

列車中에서盜難

現金三百圓과金剛石佩物等

【平南支社發】국제열차는 범죄를 싯고달린다 일일부터 북경까지 직통하는『세기의특급』열차가 이일오후구시이십분 평양을통과한후 그차에 탄 북경하장신화가(北京荷莊新華街)반전(飯田)방의서구후사유(西口)가 현금삼백원과금강석『오비도메』(帶止)삼호비나 동귀금속장신구십수점을 도난당한것을 발견하고 신안주(新安州)에하차하여 안주서에신고하엿는데 그여자 여메라고잇다가 평양역에서 하차한 어떠청년이수상하다 하여 피해자는 다시평양까지와서 범인체포를 기다리고 잇다

賣渡價格十萬圓

大邱金密賣事件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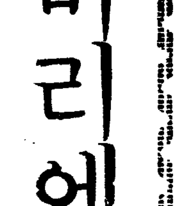
【慶北支社發】기보=대구부내를 중심으로 금밀매사건(金密賣事件)은 경성(京城)및부산(釜山)지방까지에도파급하게되엿다함은보보에 기보한바어니와 대구서에서는 련일극비밀리에 취조한결과 범죄사실이 점차로 판명된다는데, 모처에서 탐문한바에의하면 방금검거된 관계자는 한거시오명으로 경성(京城)의유신상회(裕信商會) 이상봉(李相鳳)의삼명과부산(釜山)지방으로부터 세명대구(大邱)부내본정(本町)이정목일번지 이성조(李聖祚)외금은세공업자(金銀細工業者)일명등이검거되엿다는데 금밀매가격(金密賣價格)이 십만여원에달한다고한다

咸南道判任官 二百名에昇給

【咸南支社發】"사리맨"의기쁨 함남도에서는 구월삼십일정기승급을하야 도내관리 학

廿五錢蔘돈버리에 夜陰속에風餐露宿

잠주린五千女工이겐 秋夜長도거즛말 ③



고려인삼은 산물로써만 귀할뿐아니라 개성을 부자의 도시로만들고 세민층을 먹여살리는데 큰힘이잇다 측한해가을이면 삼백여명 인삼경작자에게 떠러지는돈이 삼백오십만원(紅蔘 白蔘 原料代)이나되며 무산대중에게 산포되는 품갑이 십만원이란 거액이된다 때문에 개성부자들은 대부분이 인삼재배로 풍부한 이익을보아 돈을모흐며 오며를 움수리든 세궁민들이 가을이면 슘끌되박이나마사서 굶지안코 먹게되는것도 모두삼으로 버는때문이다

그런데 때는 인삼때라 요즘개성에는 일년중 제일번잡한철이다 빈부를 가릴것업시 삼분을 벌기위하야 인삼채굴포(人蔘採掘圃)로홍삼제조장(紅蔘製造場)으로 백삼제조장(白蔘製造場)으로 제각기 모이찻는 새떼와가티 허터저 돈벌기에만 골몰하는것이다

그래삼대만되면 개성화류계나 음식점경기는 확실히 한산해지는것이며 허다못해 이발관까지 손님이 업다고한다 이것을보면 삼도개성의 가을은 벌솜만일쏘솟은 모르는 시절이다

아니침식을 잇고 드리뎁비는그들에게 어느여가에 술마시고몸치장할새가 잇스랴? 그런중에도 제일밤잠을 못자고 고생하는이들은 삼까는 안악네들이것갓다 원수의 삼분이십오전이무엇지 이돈을 벌기위하야 매일새벽오류저녁식 동원이 되는것인데 놀라지마라 이네들은 밤중부터 공장으로 달리는것이다 안개설린 새벽, 찬공기에 려와야 굿게다친문은 아직열때가멀엇고 그들이 기다림마한대합실(待合室)조차업다 이들여공들은 의지깐 하나업는 무주공처(無主空處)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할밧게—전등불조차꼴고잇는 뿌이한 안개속에반드시들가리 떠는생명들이 웅크리고 안저서 졸고잇는것을 보면 그래도 잠은 부족한것인가 보다 그리자 새벽네시만 되면 몰리고 차힌 여공의 한목결은 일제히오십미돌이나 장사진을 느러가지고 아우성을 치는것이다 『여보 고만좀미루』『사람죽겟소!』하는 소리가나면 『아야아—』발플쾌진다』하는신음소리도 나다 이처럼 와락쓸녀닷뒤문이 열리다하는 사람의물결은 마치범람하는 홍수와가튼 위대한 힘잇고 구지다친 철문을 유타하는것이나 어럽때마다 짓눌려 꿰져 죽게된 생명들은 비명을 친다 이때에는경관들이 철문에 올라서서 몰러서라 고함을 치고 소방대원들이 몰려와서 밧줄로 간욱막어 한패 두패로 무리무리 갈려놋키에 필사적노력을한다 만일소방대와 경관의 이가튼 보호가업다면 그통엔 밟혀죽는이와 골리떠러지는이등 매일부상자가속출할것이다 아니 면단전만해도 이문전에는 피비린내나는 참사사건이해마다 잇섯든것이기억된다 이러케경할 생활전선의 판문에서 네다섯시간 자진고초를겪거야 삼늘 씨서 까게된다 이때가 오전 다섯시경—이욱고 공장문은 열린다 그리자와르르—슭려드러가는 군중기세!—그것은 마치 어듸를 한모퉁이치려가는 돌격부대와 가태서그의적이 폭우에 장종이부러떨치는것갓다 이때는 소방대의제지가 다무엇이냐 날뛰여 방여리가 따로엇이나 날뛰어 방여진을 못치르고 술려드러가는것이다 그리다가 어프러지고 짧히는여공

여공 그들이 술려드러간 자리에는 이런꾸플들이 흐터저잇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하러 이가티 밤잠을 못자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고생을 하는가 당당히 삼표를 가진이상 제시간에 알맞처가면 되지안켓는가? 밀자는 어정을 한녀공에게 친히 무러 보앗드니 그는 다음과가치 대답한다『자기는 집이 십리나되게 먼관계로 마음을 조리고 자는때문에 새벽한시경이면 꼭꼭깨는데 다시잣다가는 해여 지나칠가하는 조바심에서 그냥그대로 공장문전에가서 풍찬노숙을 하게되고만다』는것이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는때문이다 그리고 둘재로는 먼저드러가 삼성을마려야 우선권이잇서 구밤을 아니방지 나종가서 한목끼려면 서로를 미러 쪼저내거나 주거나해서곤란하게한다는것이다 이때문에자연서로들밤에 단잠을 주려가며 새벽한시부터 드리뎁비는고나, 생각하니 요즘 가을밤이 길다해도 이들에겐 거즛말일것갓다 (계속)

(사진은 공장을 출퇴하는여공들)

(開城特派員李東秀記)

照明彈

쓰레기통을 뒤지어 아들을학비를대다가 밀정 쓰레기통 복어알로 회사한 인천(仁川)의 인정애화

◇ 아비로서 자식을 사랑하는것은 상정이나 불쌍한아비까지 대엇다니 흉악한노릇

◇ 돈이잇고도 자식공부조차안시키는 수전노도업지안흔 세상에서랴

◇ 세상의 수전노여! 이사실을 어떠케보는가? 재상음미하소서

맥근한맵시를맨드는

資生堂

コールドクリーム (콜드크림)

バニシングクリーム (바니싱크림)

SHISEIDO GINZA TOKYO

資生堂콜드크림 또는 바니싱크림중의 어느것이나 한個를 사실때마다 左記新製品(試用型)三種中에서 一種을 떼지안코 贈呈

花椿會員이신분에게는 買上高一圓마다 다시 쿠ー폰 一枚進呈합니다

期間・十月末日까지

全國各地資生堂 체스토아에서

定價 五五錢 一圓〇錢

□景品

新製品(試用型)

資生堂스킨로ー숀

資生堂스킨크림

모든가 비타민A・D・B・E・를 含有한 皮膚의榮養化粧料

資生堂핸드로ー숀

손을 곱게하며 거칠지 터지는것을 防止한다

花椿會에入會하섯습니까?

깨끗하고 음케 아름다운 化粧이야말로 銃後女性에게 바라는바입니다. 花椿會는 여러분께서 보다 端正하게 보담 더活潑하게 되시도록하기爲해서 모인 질거운 모듬입니다. 따라서 會員여러분에게는 美容, 流行, 趣味等 有益한 記事를 滿載한 月刊雜誌『花椿』을 떼지안코 贈呈하여서 參考의資가 되도록하며 隨時各地에서 講演會와 實演會를 開催하고 여러분을 招待하여 새로운 美容技法에 對하야 議論과 硏究하신것을 交換하는外에 年一回會員 여러분에게 感謝한뜻을 表하는것으로 記念品을 보내드리고 잇습니다. 昨年은 記念品으로써 豪華한 바니티케ー쓰를 贈呈하여 큰好評을 바덧습니다만은 今年에는 記念品으로서 美麗優雅한 西陣織의帶地 드레파 紙函入등을 目下製作中입니다 더욱이『花椿』은 여러분의 美容의友로서 여러분이 기다리고잇는 雜誌이오니 모쪼록 동무를 勸하셔서 가치 入會하십쇼

◇花椿會는 資生堂化粧品을 愛用하시는분으로써 會員으로합니다

◇花椿會에 入會希望하시는분은 資生堂 체스토아에서 資生堂化粧品을 사실때에 그러한것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곳會員이 되실수잇습니다 (會費不要)

本社直通

廣告部 電本四〇三〇番

販賣部 電本六三八一番

トウ・ラムプ・トウ・ラムプ石綸・トウ・ラムプ齒磨・トウラムプ齒刷子

只今까지 업섯든 二重코일의 新製品입니다 다른電球에 比해보십시오 十二割의 밝은것이잇습니다

宣傳販賣中

二五W〜六〇W 三十五錢均一

お求めは御近所のトウラムプ連鎖店にて

明視ランプ (램프)

トウラムプ 連鎖店

東京 東西電球株式會社

映畫は日活 信樂館

三日より特別封切 ◇日活超大作 田坂具隆監督 五人の斥候兵 小杉勇 見明凡太郎 伊澤一郎 星ひかる 主演 國際映畫コンクールに於て世界第一位の名譽

◇コロンビア その夜の眞心 マーナ、ロイ ワーナ、バクスター 主演

◇日活京都特作 海賊船 尾上菊太郎 花井蘭子 主演

朝日、パテーニュース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

十月一日より 每日三回興行 三回七時

佛SNC社超特作 地の果てを行く 장 아 나 베 라 가 방 主演

松竹大船映畫部超特作 軍國子守唄 坂本武 飯田蝶子 主演

大毎ニュース パテーニュース

(次週豫告) 赤ちゃん、或る女の

馬山支局 住所變更 馬山府俵町三三番地 電話取次三六六三番

廿年間朝鮮經濟의發展相 ①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第二章에 「殖銀設立後의 朝鮮經濟의發展」이란것이잇다。 어긔는 朝鮮의成長을 通해본二十年間의 朝鮮의産業과 金融의發達을 明記한것임을 이에轉載한다。

産業篇 ①

朝鮮은 周知하는바와가티 鴨綠、圖們二江으로써 滿洲國에 接壤하고 長白山脈이 東部를 縱走하야 脊梁이되어잇서 東、南、西의 三面이 바다에 圍繞된 一大半島로서 諸河川이 大槪西流하야 廣大한 沃野를 釀成하고 北部二江의 流域에는 鬱蒼한 天然林을 包有하는 面積一萬四千三百餘方面에 亘하는 地域의 總稱으로 氣溫은 大槪溫和하야 天氣는 快晴、空氣乾燥하야 植物의生育에 好適하다。따라서 古來農村産物을 爲始하야 畜、蠶産의 資源이 豐富하고 또 沿海에는 魚類의利가 만흐며 地下에는 各種의鑛物을 包藏하는等 許多한 天賦의資源을 豐富하게 具有하고잇다。이에加하야 此等資源의 工業化에 必要한石炭、水力電源도 豐富하며 勞力도亦 不足되지안흠으로 新政下 朝鮮의産業은 急激한發展을 보게되엿다。朝鮮産業은 始政以來 帝國政府가 特히 注力한바로 農業의開發、鑛産、其他産業의 振興을 圖하야 生産力을 增進하고 그産額의 飛躍的發展을 期하엿는데 얼마되지안어 歐洲大戰에 際會하야 이를契機로써 新經濟上의 發展의 好況을 誘發하는 同時에 我帝國의 食糧及工業原料自給政策下에 帝國産業의 一環으로서 新使命을 負擔하게되엇다。

即歐州大戰의 進展에따라 我國産業經濟界는 未曾有의 發展을하는 同時에 物價의 騰貴가 자못甚하엿는데 就中食糧의 需要는 激烈을極하야 年年三百乃至五百萬圓의 外米를 輸入하게되어 大正八年에는 四百六十四萬石、價額一億六千二百萬圓에 達하엿다 그리고 米價는 第上昇과 人口增加의 趨勢에 鑑하면 米穀需要의 增加는 必然하게되엇다。

當時內地는 米穀增産에 多大한 期待를 가질수업는 實情이엇으나 朝鮮은 未墾地가 만코 그우에 水利의 便도 아직完成되지안허 따라서 土地改良事業을 振興하야 耕作面積을 擴張、灌漑의 便을주어 旱魃의 災害를 防止하야 農事改良의 方途를 講究하면 單只 我國食糧問題解決에 貢獻할뿐아니라 또朝鮮의 富力을 增進하는데도 極히 時宜에 適한 方策이엇다。

要컨대 本計畫의 確立은 朝鮮金産業의 積極的開發에의 邁進에 不外한데 大正七、八年度의 我國食糧의 不足과 輸入品의 騰貴에 鑑하면 本計畫의 實施는 單只食糧問題의 解決及 國際貿易收支의 改善上 必要할뿐아니라 國防上見地에서도 그目的이잇서 大正十年九月 朝鮮總督府內에 設置된 產業調査委員會에서도 特히此點이 强調되엇다 本計畫의 樹立은 從來政治上의 不安及 資源의 未開發로因하야 閑却되엇던 朝鮮이 我國產業經濟上의 一環으로서 國家的事業에 參加한것을 如實히 表示한것으로 朝鮮의 產業經濟史上의 劃期的時代이고 我國產業經濟上의 朝鮮의 重要性을 確認한것이다。

이로써 倂合以降의 原始產業의 漸進的開發方針은 一大飛躍의 機運을 마지하는同時에 朝鮮의 產業은 蓄積을 脫却新段階에 轉入하게되엇다 本計畫의 着手에 依하야 新興朝鮮産業의 基礎는 確立되엇다。

米實收高는增加?

米穀金融不縮少
減收이라도米價高로

朝鮮米第一回收穫豫想은 二千三百五十萬四千五百十六石으로發表되엇는데 第一回豫想調査當日(九月二十日)前後의 天候는 各地가 모두順調임으로 今後天候만 조흐면 第二回豫想(十月二十日現在)은 幾分增收이겟고 實收高는 二千四百萬石臺로 되리라고보인다한다 過去의 實績으로보더래도 秋收期의 天候가順調인해에는 第一回、第二回보다도 實收가 漸次增加되는것이 常態임으로 今年의氣象型으로보면 實收增加는 確實視된다한다

米穀金融은 端境期를 機會로 去益旺盛할것을 豫想하고 銀行側은 이資金準備에 着手하얏다 第一回收穫豫想은 三百三十萬石의 減收라고는 하나 米價가前年에 比하야 約一割高이므로 金融은그다지 縮少되지는 안흘것이라고 豫想된다 이로因하야 積租의 金融은 一切로 實施치안흘모양이며 結局倉庫金融과 荷爲替金融에만 局限될것갓고 金利도 倉庫金融과 荷爲替金融이 다르나 大體로 一錢一厘乃至一錢六七厘로되리라고 豫想된다

小型船도 自治統制機運

海運自治統制上 所謂海上트럭의 小型船問題는 頭痛꺼리로되어 잇던바 이部門에 對하야도 今回 近海汽船同盟이 結成되고 自治統制를하게되엿다 이것은爲先 京濱、阪神、關門을中心으로하는 內地主要七十四社를 糾合하야 內地本位의것인데 右海上트럭의新統制는 當然히朝鮮米輸送及 關門對南鮮航路에도 直接間接의好影響이 期待된다 朝鮮으로서는 旣報한 鮮、殖銀提携에依한 船荷證券을通하여서의統制도잇서 어 海上트럭의自治統制는 顯著한影響을 미칠것으로보인다한다

十一個月間米輸移出
一千七十萬石
比前年同期五割五分增加

九月中米移出高는 三十四萬七千六百二十八石으로서 比前年同月十六萬一千八百十石의 增加이며 昨年十一月以降米移出累計는 一千四十萬八千六百四十九石으로서 比前年同期 三百七十三萬六千五百十一石의 激增이엇다
米輸出은 九月中에 二萬八千百九十六石으로서 比前年同月二萬七千七百二十石의增加이며 米輸出累計는 二十五萬九千七百九十五石으로 比前年同期二十二萬九千五百七十三石의 驚異的大增加이엇다
그리하야 昨年十一月以降今年九月까지 十一個月間의 米輸移出總量은 一千七十萬八千四百四十四石으로서 前年同期의 六百七十四萬二千三百六十石에 比하면 三百九十六萬六千八十四石(五割五分)의 增加量을 示하얏다
一方 米移入은 九月中에 八千三百十九石、累計四萬六百六十石으로서 前年同期에 比하면 九月中은 約一萬石、累計는 半減되엇다

九月粟輸入增
累計는七十九萬石減

粟輸入高는 九月中에四萬三千八百二十一石、累計六十萬四千十五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九月中은 三萬二百十三石의 增加이나 累計는 十九萬六千八百八十四石의減少를 示하얏다

端川마그네사이트
總督府도出資
咸興鑛山株式會社創立

咸南端川郡南斗日面의 埋藏量 三十億噸이라고 稱하는 마그네사이트鑛區는 目下主要會社의 鑛區으로되어잇는데 本鑛區는 이미 總督府自體가 先願權을가지고 鑛業權을 獲得할수잇는 地位에잇스므로 總督府當局으로서는 마그네사이트 資源開發의確保를하는方針에서 各鑛業者로하여금 探鑛資金을 目的으로하는 新會社를 創立시키고 總督府도 이에 參加할方針으로 目下準備中이다

運賃會議地未定

朝鮮內에서 開催할次回 朝鮮米輸送三著協議會에 關하야서는 船腹不足의關係로 新穀出廻期에 對處하야 會期를할수잇는대로速히하야 當面의 善後策을 강구하자는論에 一致되여잇는데 輸送協會와 大阪米穀會에서는 十一月五日頃을 適當하다하야 穀協本部에 希望을가지고잇다 穀協에서도 大體 그때를適當하다고 認하고잇는데 그開催地에 關하야서는 麥夕協會에서는 群山開催를 希望하고잇스므로 四日委員會에 諮問한後 決定하리라한다

東拓의收納米
五十一萬石內外?

東拓朝鮮支社管內의 收納豫想米第一回收穫豫想은 前年實收의 二割一分强減으로發表되엇는데 東拓朝鮮支社管內의 收納豫想은 아즉各支店으로부터의 報告未着이나 大體前年의 實收五十四萬石보다 三萬石程度의減收인 五十一萬石程度로 豫想된다

中小工業窮狀
漸次表面化

物資動員計畫의 强化에 相伴하야 中小商工業者들의 其後事情에 對하야 朝鮮商工會議所에서는 各方面으로 情報를 收集하고잇는데 最近 고무、洋靴、洋服、金屬等의 業者들의 失業者가漸次로 增加되고 特히 고무工場等은 離職者가 나오고 洋靴商、洋服商等은 開店休業狀態이며 金屬에 關係잇는 朝鮮人의 鍮器商은 全滅狀態에 瀕하야 中小商工業者의 不振은 드디어 表面化하게되엿다 右에 버치어보아 朝鮮商工會議所에서는 中小商工業者의 救濟施設의 確立을 目下積極으로서 當面問題로서는 中小商工業者의 組合組織을 强化시키어 國家와 地方의 補助施設을容易하게하는것이 必要視되며 會議所關係의 中小商工業者의 組織强化를 極力從事하기로되엇다한다

貿易의實績改善

九月下旬의 本邦對外貿易은輸出 九千一百萬圓 輸入七千五百萬圓 出超一千六百萬圓으로되엇고 繼續하야 順調한 推移를보이고잇다。四半期別로보면 左와如히 輸出은增加傾向이 顯著하고 一方輸入은 減少傾向이 顯著하야 第一四半期及 第二四半期는 入超가 各各六千五百萬圓、一千三百萬圓이던 것이 第三四半期에 잇서서는 入超가 激減되고 다시 第三四半期累計는 輸出七億三千二百萬圓、輸入六億二千三百萬圓으로 出超九千八百萬圓을 보이어 貿易收支는 자못 順調한 推移를 보이고 잇다。(單位千圓)

	輸出	輸入	入出超
第一四半期	六〇四、三八〇	六七〇、二一六	入超六五、八三六
第二四半期	六二二、一二〇	六三五、一〇二	入超一二、九八二
第三四半期	七三二、一八八	六二三、四七六	出超九八、七一二

第三四半期 三三八、三〇七 三三八、三〇七 出超六一、三三一 또 一月以降累計는 輸出二十億一千六百萬圓、輸入廿一億一千九百萬圓、入超九千七百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輸出入이 各各 顯著하야 入超는 顯著한 減少를 보이고 있다。즉 前年同期에 比하야 輸出은 六億四千四百萬圓이 減少하고 輸入은 海外農業國이 不況으로 購買力이 低下된것 其他各國의 不況과 日本商品의 「코스트」高에 主因이잇다。

一方輸入은 輸出보다도 顯著히 激減이 顯著하야 十億八千七百萬圓의 減縮을 보이엇는데 이것은 爲替管理法實施以來의 輸入抑制의 强化에 依한것이다 또今後도 滿洲의 建設에 輸入을 增加시키지안켓다는 言明으로 보아도 統制强化에 依한 貿易收支는 改善될餘裕는 充分히잇는모양이다。

輸出에 關하야서는 綿織物、絲는 反對로 減少를 보이고있다。이와 同等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同格的制度가 完全히 能力을 發揮하면 輸出力擴張도 若干期待할수잇을것으로 보인다 現在同制度實施後 我國通商市場은 世界市場에 接近하야 輸出伸力을 加하고잇스며 다시 링크制以外의 輸出振興策도 攻究되어잇스니만큼 輸出進展의 前途는 悲觀할것이업을것이다。

輸出入內容을 市場別로보면 所謂 圓통화圈의 貿易이 增大하고 其他市場에 對한 貿易은 萎縮되어잇다 即滿洲、關東州、支那에 對한 輸出의 一月以來의 累計는 七億一千七百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億五百萬圓을 激增하고 輸入은 三億九千一百萬圓으로 六千五百萬

▲九月下旬貿易槪況 (單位千圓 △印入超)

	輸出	輸入	入出超
本旬	九一、〇六六	七四、八三四	一六、二三二
前年同期	一三六、八八四	一二一、二四一	一五、六四三
一月以降累計	二、〇一六、六二一	二、一一九、一五七	△一〇二、五三六

▲對外貿易概況(一―八月累計)

滿洲	一六一、〇四四	三三一、〇五三	
關東州	一八七、九六九	一三、〇五一	
支那	一八八、三五五	八一、二二一	
小計	五三七、三六八	一二五、三三五	
前年同期	三一八、一一七	七二一、一二五	

貿易總計 (「八一五、一三」 △六三二、八三一)

一月以降의 輸入超過額은 九千七百四十四萬七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億四千六百六十四萬六千圓의 入超減少이며 그內容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對外貿易額 (△入超)

	輸出	輸入	入出超
神戶	三、四七五	二四七、九八四	二四七
港別			

經濟界消息

○蒙疆金融業者訪日視察團＝蒙疆金融業者訪日視察團長 酒井輝馬氏一行十名은 來十日新京으로부터 入京하야 十一日京城發大阪에 直行할豫定이라고
○穀物協會委員會＝朝鮮穀物協會에서는 四日午後二時 京城俱樂部에서 委員會를 開하고左記件을 附議한다고
一、明年度豫算大綱에 關한件
二、木浦서열리는 穀物大會에서表彰할米界功勞者選定件
○朝郵靑島出張所開設＝朝鮮郵船에서는 今回 對支航路의 擴充强化에伴한 靑島航路의 開設에備하야 靑島에 出張所를 新設키로되여 出張主任에 津森慎一氏를 任命하엿는데 여외에 大阪支店의 擴充强化를 行하엿다고
○平北鐵道一回拂込＝鴨綠江水電建設과 倂行하야 建設을 急히하고잇는 平北鐵道에서는 第一回設資金充當을爲하야 第一回拂込株當十五圓 總計三百萬圓을 徵收하기로 決定하고 資金調整法의 認可를 出願하엿든바 拂込은 認可가 順調히되면 十一月上旬의 豫定이라고
○國産自動車公募不行＝國産自動車工業은 過般의 增資決議(資本金一百二十萬圓을 六百九十萬圓으로되는것)에 基하야 本月二十六日第一回增資新株의 拂込을 徵收할터인데 一回拂込은 一株十八圓五十錢이오 增資株의 公募는 行치안키로되엇다고

爲替市勢再惡化
四國會談으로因하야 戰爭廻避

東京電話 法者○로因한 倫敦取引은 .. 對英貨는 再惡化되야 四弗七十九仙、四弗七十九仙으로 前日에 比하야 二仙一分一低이엿는데 米日爲替도 이에따라 廿八弗臺가 再次깨여저二十七弗九十五仙으로 一畢에 十五仙低로 暴落이엇다

朝郵決算良好
八十萬圓增收

朝鮮郵船은九月末으로써決算을 마감하고 來月二十八日 定時總會를 開催하고저 目下決算을 査定中인데 廣瀨專務는 右決算案을가지고 七日發渡東하야 十二日東京에서 重役會를 開할豫定이다 今期의 業績은 前期에 比하야서도 良好하야 總收入이 前期(五百四十萬圓)보다 約八十萬圓의 增收로서 會社로서는 增配를希望코잇스나 遞信當局의 同社株式配當에 對한 方針으로 보아 或은六分配當을 据置로될듯하다한다

長津江水電
十五萬키로發電

長津江水電은 過般의 水害에 依한 復舊工事에 努力中인데 大體復舊工事가 終了되어 目下十五萬키로의 發電을 行하고잇는바 이것은 第一發電所의 修理가 完了되지 안허 三十二萬키로의 全運轉을 하지못하는 때문이다 赴戰江水電은 全運轉하야 二十萬키로의 發電을行하고잇고 興南工場은 支障업시 操業하고잇다한다

東株情報 【東京電話】

當地 新東은 本店의 三、四百枚의 買進이잇섯는데 이것은 前日步를 解消시키지안키爲한것이다

株式 往來

今日의市勢 (四日) 一高一下

前場少高

今朝外電은 株式에는 別無新材이엿스나 惡材도 一旦出盡된感이잇서 市場에 明朗性을 加하야東新一高인 一四四圓七、鐘紡도 一高인 一五四圓五에 寄付後 買進態勢에 들어 가東新一四六圓八、鐘紡一五五圓五에 昻高하엿다

後場伸悩

前場少騰後後場은 東新百四十五圓九인 一低鐘紡百五十六圓三인 高價로 鞘寄付後 稍軟材料薄으로 氣迷되여 反騰裡大引

다서買姿勢?

今朝外電은 스팟株를 除外하면 株式은 一齊暴騰이엿고 爲替는英米、米日은 모두反落을 거듭하야 米日은 又復 二十八弗割의 二十七弗九十五仙이엿는데 漢口目標의 戰局進展은 依然하나 羨言及한바와가티 國府의 抗戰力을 徹底的으로 倒壞시키는데 戰爭目的이잇다하면 戰爭進展에 對한 測定은 딱 막연하여진다 그러므로 只今부터 買進하여서 果然미러 지처질 念慮가 업슬는지 하는데 그러나 買方의苦痛가 엿는모양이다 그러다고 漢口攻略以外에는 全혀無材料이므로 어쩔수 업서 多少의 消極的買進을하고 잇는터이라할수잇것다 그러나 反面에있서서 생각할수잇는 惡材도 一旦出盡된感이 잇스니만큼 場面에 明朗性을 加한것만은 事實이다

鐘紡新株式入札

入札總株數	八、二四〇株	
同最高價格	七四、二〇錢	
同最低價格	七一、〇〇	
落札總株數	一、五八〇株	
同 總代金	一一七、〇四〇圓	
同最高價格	七四、二〇錢	
同最低價格	七三、三〇	
同平均價格	七四、〇五	
鐘紡株權利價格	六一、五五	

參考東株實物市勢一週間平均價格

證券部組合役員改選

朝鮮取引所證券部取引員組合에서는 三日午後總會를열고 役員의 任期滿了에依한 改選을한바 如左히 新役員을 決定하엿다
▲組合長 新田義民 ▲副組合長 東亞證券 ▲委員(會計)古野取引店 成濟竹松 拓滿取引店、山本源作 金益證券

國債無活氣

【東京電話同盟】格別히 新規材料가업고 特히長期는 當限落의 墳過日活氣가薄한데 人氣는 五分半中心으로 押目買에 僅되엇스므로 市勢는 堅調하야 甲號五分은 五錢高를 示하얏다 佛貨는五錢低 米貨는 六分半三百六圓三十錢으로 十錢高、五分半은不變으로 高價一圓이엿다

▲一回四分一〇二、九〇 ▲二十三年物四分一〇二、九〇 ▲米貨五分半二二七 九八、七〇

鐘淵實業株入札

入札株數	六、三四〇株				
落札內譯	落札株數	落札價格	落札者		
五〇〇	七四、二〇	山本			
五〇〇	七四、一〇	〃			
五〇〇	七四、〇〇	〃			
八〇	七三、三〇	內藤			

入札總株數 九四八株 落札價格 前期 七〇、四四錢

期米 反弛後에 底强

前場反落

今朝阪地先限三十五圓二十八錢인 四丁反高를發하고 當限三圓三十二錢인 八丁高、中限三圓五十九錢인 二丁高로 先限은 三十三圓五十七錢인 七丁高로 場을 始한後阪地二節二十五錢으로부터 漸次低移하야 結局十九錢에 止場하얏다 常限은 三圓丁中 四十錢先限은 四十三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底强

後場은 三十二圓四十一錢인 二丁低로 始場後二節四十四錢 三節四十五錢 五節四十六錢으로 反强이엇다

朝鮮米는大減

昨日正午에 發表한 朝鮮米作第一回豫想은 二千三百五十萬四千五百十六石으로 昨年同期에比하면 三百二十九萬二千四百三十四石의減少를 示하엿다 發表前의一般豫想은 二千五百萬石은 不下할것이라는說이 多하엿스나 結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限	
㊐一〇〇	㊀一〇〇	
㊁三〇〇	㊄一〇〇	
㊂一〇〇	㊆一〇〇	

市場(公感)

株……今朝는 多少의 買氣가생기여 少高이엿스나 閑散은未脫 ▲百五十圓臺에서 伸張치못한 市勢이니만큼 어떠한 活氣가落하여도 漢口陷落을 明白히豫測할수도잇서 買方의 憂慮不得已는것이 取組高가적은것이 要因의하나이라 할程度어니 市勢는 넘우나 消極的이다 ▲그러나 一方이러하할한 惡材도 一旦出盡되고말엇스니 仲秋에 들어갈늘라 市勢도 態度를 加하여갈것인가?

米……今朝當地는 阪地의 四丁反高를 伴하야 昨止보다는 七丁反高를 示하얏스나 一時的現象으로 十餘丁의 反落을 告하엿다 ▲內地米作 第二次發表는 마치엇더할것을나 이미發表한 比例로나간다면 凶作說도 解消될모양 ▲何如間 第一回豫想의 市勢는 旣히一巡하엿스니 當分高價는 難期? ▲압흐로 新穀의 氣分은 넘이 갈수록 滿洲與 하여짐모양이니 「모도리」買도 禁物! ▲그러하고 深入賣도 警戒不怠

內地米作豫想

比較的減少弱

內地米作豫想第一次發表는 一千五百七十二萬二百十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八萬五千六百四十石의 減收를 示하고 昨年度實收高에比하면 三千二十四萬四千七百四十一石 增加를 示하엿스며 二次分發表의 增加를 示하엿는데 昨年에比하면 四百十石으로 二十一地方의 減少를 示하엿다 二十三萬七千石의 減少를 示하엿다 何如間第一次豫想은 이미發表가 如何히될지는 모르나 二次分의數字가 昨年보다 四十餘萬石의 減少에 不過한것 壹表가 如千주다고하더라도 一般米界에서 豫測하더바와 來하고 大不同의 數字이다 米發表의 地方을 一次에 分割하는 一次에 全部發表할수지는 못하고 大體內地米作은 凶作을 正反對의 現象으로 發表되엇슴으로 보아서 朝鮮의 如千減少는 足히 問題視할 餘地가 업슬것으로 보는 結局 此邊의 高價로써 豫想發表의 一幕을 告한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한것 같다

正米 氣迷裡 保合

京城釘付

新米의出廻는漸次로 增加되고 市中人氣는內地第二回收穫豫想發表待로 아직은 積極的賣物이업고 各地精算의不勢를키어 新米의出廻期의 인만큼 鮮的人氣에 市勢도前日同樣으로不變이엇다 ㊀穀良三等三十三、五〇 四等三十三、一〇 一等白米一四、一〇

仁川不動

市中人氣는新米의 出廻가 大口的 出廻가 아직도 氣分이나 아직도 업고 品質良好도 確定的것이 못되며 內地도 入注도照電뿐으로 去來가 업다稱白側의 多少 原料準備以外에는 이러하할만한 것이업스므로 不勢라 適價關係及 內地第一回豫想全貌表를압두고 消極的이어서 市勢도不動이엇다 ㊀穀良三等三三、三〇 四等 三三、七〇 三等三三、三〇 銀坊主三等三十三、七〇 四等三十三、四〇 多摩錦 三等 三十三、九〇 ㊀穀良 一四、〇五 一等白米一四、一〇 四等三十三、四〇

釜山氣迷

他市場에는全部 가일직부터 上場으로 新米氣分에 醉하엿스나當地는 아직도大大的新米의 出廻가 업는만큼古米薄에 商談不振인때에 收穫豫想發表는 朝鮮은意外로 不良하나內地는 意外의 好調를傳하야 一層氣迷되여 稍白移出側의 十日의荷出할準備以外에는 全혀買氣不振으로內地의 全貌發表待로 市勢도 前日同樣으로不變이엇다 ㊀

大邱保合

彼岸天候良好로 恢復되엇다고는하나 相當한量의不作豫想을하여던 內地는 意外로好成績이고 豐作謳歌이던 朝鮮은 意外로減收發表로 氣迷되여 雙方이 모두傍觀態度이고 다만 今日發表될 內地收穫豫想의全貌待로 閑散場面이엿다 ㊀穀良三等三三、五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三、九五

群山軟調

移出側의活動은

木浦不變

一般으로 適價期待와 第一回內地收穫豫想全貌發表待이며 各地精算의伸縮을보고 市中에는 新米가出廻하기始作하엿스나 小口的이고 精米側은일직부터 古米는 賣行不振이여서 關係로 場面은閑散하고 市勢도保合이엇다 ㊀銀坊主三等三三、九〇 一等白米一三、八〇 四等三十三、四〇

物價

塗料昻騰

塗料는 原料價의昻騰에따라 市勢가 上騰하엿는데 白페인트(二六〇〇番)十二斯半에 一圓五〇錢이 더엇이 十二圓으로 光明丹第十二斯半에 一六圓八〇錢으로 各各高되엿다

京城物價 (四日)

▲白米(一瓩、單位錢) 多摩錦一等 三五、五〇 特等 三五、〇〇 ▲本綿部(反、單位錢) 毛斯 ... (market price list; many items, figures largely illegible at this resolution)

海外經濟 (三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weekly note issue figures)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call rates)

◆京城手形交換高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大連 滿洲商況 市勢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生絲 ◆橫濱生絲

人絹 ◆各地人絹

棉花 ◆大阪棉花

綿絲 ◆大阪綿絲

株式 ◆朝取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朝取主要株取組 ◆算定代引日步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期米 ◆各地期米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一九・五六一・三九六

京城證券部・期米部・仁川 吉村取引店

期米株式 大 仁川海岸町 京城黃金町 マルダイ取引店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話本局(代表)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